朝鮮日報
夕刊 七日(日)
不許轉載 夕刊十面
發行人 方應謨 編輯人 金炯元
發行所 朝鮮日報社 株式會社

社說 新聞展覽會의 意義

一

本社新築社屋落成式과 同時에 開會된 本社主催新聞展覽會는 滿都의 人氣를 集中하야 今日로써 그 第二日을 마치엇다 朝鮮의 新聞文化가 輸入된지 이미 數十年이 되엿지마는 이제까지 新聞文化에 對한 一般的 資料를 展示하고 또한 그것을 理解하기에 必要한 統計表 其他를 一堂에 蒐集하야 써 널리 그 全貌를 總括的으로 一目瞭然하게 讀者諸位에게 提示한 試驗이 업섯든만큼 本社의 新聞展覽會는 實로 이러한 種類의 事業에 對한 先驅가 되고 또한 이것을 契機로 하야 朝鮮新聞文化의 意識的 發揚에도 劃時期的인 刺戟劑가 될 것을 밋는 바이다。社會에 對한 本社의 奉仕로써 巨大한 效用과 크다란 勢力을 엣기지 안코 成就한 展覽會가 昨日開幕日 一日의 試驗으로보아도 一般觀覽者의 熱狂的 讚頌을 博得하게 된 것은 本社의 所望과 一般의 期待가 合致되엿다는 點에서 一方으로 看過할 수 업는 同時에 이 機會에 새로히 讀者諸位의 聲援이 잇슴을 感謝하는 바이다

二

新聞文化란 現代에 高度로 發達되어 表現文化中의 가장 表現的인 것으로써、先進諸國에 잇서서는 新聞은 社會生活의 가장 必須的인 部分이 되고 잇는 것이다。政治와 經濟와 外交關係와 文敎와 藝術과 其他社會에 生起하는 모든 事態와 各各으로 變化하는 日常生活의 모든 部分이 國家的 民族的 國際的 規模에서 나날이 吾人의 眼前에 包括的으로 縮約的으로 展開되는 것이 現代 新聞임이다。따라서 新聞文化를 理解한다는 것은 現代文明을 理解하는 것이 되고 時代感覺을 가장 敏捷하게 攝取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本社展覽會에 蒐集된 新聞文化에 對한 모든 資料는 그 蒐集의 範圍가 縱으로 十六世紀로부터 現代에 니르기까지 橫으로 六十餘個國家 千有餘社에 及하야 各館에 陳列된 出品點數는 無慮八千餘點에 達하고 이에 加하야 本社新聞展覽委員의 智能을 다한 數百幅의 圖表는 全世界新聞文化의 모든 機態를 가장 直截簡明하게 表示한 것이 만큼 本社展覽會를 一觀하는 이들에게는 新聞을 理解하는데 일찍이 업는 絶好의 機會가 될 것을 自信하는 바이다

三

新聞의 量的 方面에 比하야 더욱 當識的으로 아러야 할 質的 方面 卽 그 製作過程에 對한 本社館의 遺漏업는 解說與表實物 模型은、朝鮮의 新聞文化가 發展되여 나온 行程 및 現代朝鮮의 新聞 및 出版文化를 總觀的으로 集約한 朝鮮館의 資料와 合하야 朝鮮의 지낸 날 이즘의 過去 및 現勢를 吟味하는데 잇서서 充分한 參考가 될 줄로 밋거니와 吾人이 이러한 貴重한 事業을 成就한데 對하야는 오즉 過去의 朝鮮新聞文化의 貢獻者들의 努力을 想起하고 또 現在 滿天下讀者의 熱잇는 聲援을 感謝하야 스스로 責任이 重大함을 再認識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다。本社新聞展覽會가 社會的 利益되기 위하는 것은 本社의 意圖가 若干이

浙江財閥의 大動脈 銀行支配力確立

蔣介石氏와 對等의 地位獲得

宋子文氏의 勢力强化

【電通東京電話】南京政府要人中 歐米派의 巨頭이며 同時에 財界의 重鎭인 宋子文氏는 去四月以來 浙江財閥系의 紙幣發行銀行의 支配權獲得에 狂奔하고 잇는 事實이 暴露되어 各方面에 센세이슌을 捲起하고 잇다 卽上海地方의 紙幣發行額四億元中 七割을 保有한 中國、四明、交通三銀行은 大體 五月以來 宋子文、孔祥熙氏等의 勢力下에 잇고 다시 右三銀行과 함께 浙江財閥의 出店이라고 할 中國實業、中國通商의 兩銀行도 宋子文一派의 策謀로 거의 危機에 瀕하얏다고 하는 바 宋子文氏가 如斯한 立法을 强行하는 眞意에 對하야는 一般的으로 左와 如한 觀測이 有力하다 現在 浙江財閥이 南京政府의 公債十三億元을 引受하고 잇고 宋子文氏가 이 浙江財閥의 大動脈인 銀行을 自己掌中에 集中식힘에 依하야 蔣介石氏와 對等의 地位를 獲得하려고 하고 잇는 것이 아닌가고 觀測되는 바 浙江財閥에 掌握當하고 잇는 蔣介石氏는 앗차하면 當然히 宋子文氏에게 自己地位를 明渡할 것을 憂慮치 안흐면 안될 리라로 現下 狀況으로보아 그 날은 멀지 안흔 것으로 觀測되다 (寫眞은宋氏)

蔣駐日大使는 辭任 後任에는 張群氏

蔣氏와 黃紹雄氏報告聽取次 上海서 國府首腦部會議

【電通上海六日發】駐日中國大使 蔣作賓氏는 七日푸레시덴트그랜드號로 上海에 歸國할 터인데 中國側消息에 依하면 同氏는 再次日本에 歸任하지 안흘 것으로 보인다 卽 同大使는 昭和六年 駐日公使로서 赴任한 以來 五個年을 經過하고 그 間 滿洲上海兩事變의 勃發로 가장 困難한 事態에 處하여 왓는데 最近 日中兩國關係의 正常化에 따러 辭意를 決하고 數個月前 國府當局 및 蔣介石氏에 對하야 大使解任을 願하고 當局도 大體辭職을 許할 模樣인데 後任은 目下國府에서 銓衡中인데 湖北省主席 張群氏를 最適任者로서 交涉中이다 張群氏가 萬若受諾하면 그 뒤를 니어 蔣作賓氏가 湖北省主席이 될 것으로 보인다

【電通南京六日發】國民政府는 蔣作賓大使가 七日上海에 到着하는 것을 마저 第二次首腦部會議를 上海에서 開催키로 決定하고 右會議에서는 먼저 蔣作賓氏로부터 日本側의 對中方針에 關하야 詳細히 說明한 後 對日二重外交의 淸算과 日中提携의 必要를 力說하고 다음 黃紹雄氏로부터는 蔣介石氏와의 會見顚末을 報告하고 蔣介石氏의 眞意를 傳하야 最後的 具體方針을 決定할 것으로 보인다

一等驅逐艦「五月雨」進水式

【電通橫須賀電話】海軍이 精銳를 자랑하는 一等驅逐艦「五月雨」의 進水式은 六日午前七時三十分 浦賀독會社에서 末次橫須賀鎭守府司令長官以下 多數參列下에 擧行되엇다 그리고「五月雨」의 性能은 如左하다

排水量	一、三六八噸
速力	三四노트
主砲	一二七糎五門
水雷發射管	八門
長	一〇二・四米
幅	九・六米
吃水	三・七七米

金銀持出者는 銃殺 이락政府의 嚴令

【電通테헤란六日發】이락政府는 國內의 金及銀을 持出하는 者는 銃殺할 旨를 六日發令하얏다

北平市長留任

【電通北平六日發】黃郛直系와 困難한 立場에 잇는 北平市長袁良氏는 일즉부터 中央政府에 辭表를 提出中이엇든바 六日政府로부터 慰留電報에 接하야 留任키로 決定하얏다

獨逸政府列國에 建艦計畫通告

【電通倫敦六日發】議聞한 바에 依하면 獨逸政府는 日本、米國、佛國、英國及 伊太利政府에 對하야 各各이미 起工着手한 獨逸建艦中數 및 一九三五、六年 建艦計畫을 通告하얏다

世界週史

新生事件擴大

上海에서 發行되는 中國雜誌「新生」에 日本에 對한 不敬記事가 揭載되엿는데 關하야 有吉駐中大使는 二日 南京에 赴하야 그 善後措置에 對한 嚴重抗議를 提出하기로 되엿스며 이 不敬事件에 關하야 上海武官當局에서도 事態를 重大視하고 唐外交部次長에게 嚴重한 通告를 發하야 國民黨의 責任을 糾彈하는 同時에 對日二重政策의 根本的 是正을 要求하엿다

親日派의 退却

南京에서 열닌 國民政府首腦部會議에서 陳立夫、陳果夫等 國民黨首腦의 態度은 今回 北中及 察哈爾問題解決에 當하야 國民政府가 取한 態度에 不滿하고 抗日的態度를 表明하게 되엿는바 汪氏는 不得已 辭病하고 上海로 赴하엿다 政府內에는 歐米派의 再起가 豫想되며 따라 親日派의 總退却이 不可避할 수 업게 되는 것이라고 傳한다

蘇政府의 抗議

蘇聯政府는 一日駐日大使 유레니에프로 하여금 嚴重抗議를 提出케하엿다 抗議內容은 最近 日滿軍隊와 官憲이 蘇領內를 侵入한 여러가지 事件을 列擧하야 日本政府의 責任을 問한 것인데 廣田外相은 卽時 駐滿大使에게 打電하야 事件의 眞相을 調査케하엿든바 五日에 回答이 到着되엿슴으로

漢口에 排日運動

北中國問題解決과 함께 多數의 排日紙가 漢口에 潛入하야 한동안 자최를 감추엇든 排日運動이 再燃되기 始作하야 形勢는 漸次險化하고 잇다 最近 漢口市內에는 排日劇이 盛大히 演出되고 잇스며 學生에게 排日思想을 鼓吹하는 敎科書를 使用케하는 一方 國民黨部는 國家政策이라는 名目下에 排日運動을 執拗히 繼續하야 日中關係前途에 暗影을 던지고 잇다

三國共委會

日滿蘇三國共同委員會案에 對하야 지난 二十六日 廣田 유레니에프會談에서 原則的으로 意見一致되엿슴으로 유레니에프大使로부터 本國政府에 請訓中이든바 五日에 回訓이 到着되엿슴으로 卽時 廣田外相을 訪問하고 右案에 基하야 回訓을 傳達하엿는데 다시 滿洲國側의 回答을 기다려 本格的交涉을 開始하기로 되엿다

伊、英態度를 痛擊

伊、에티오피아間의 紛爭問題에 對하야 英國政府는 聯盟의 原則을 貫徹식히기로 根本方針을 決定하엿는데 一部新聞紙는 對伊經濟封鎖說을 報道하고 잇다 伊太利側은 兩三日來로 右問題에 關하야 沈默을 守하고 잇드니 右問題에 對하야 論評을 거듭하는 一方 英國의 態度에 對하야 痛烈한 攻擊을 加하고 잇다

不戰條約의 缺陷暴露!

華府方面에 修正論擡頭

【電通華盛頓六日發】華盛頓外交關係側에서는 에디오피아政府의 不戰條約引用要望에 對한 國務長官의 回答은 不戰條約의 缺陷을 明白히 暴露한 것이라고 解釋하고 此際 此種條約의 性質을 充分히 吟味하야 將來에 有効한 協定을 締結하므로써 國際關係에 하기를 바란다는 意見이 擡頭하게 되엿다 以前의 條約은 社會情勢가 變化한 今日에 此를 直時現實國際關係에 適用할 境遇에는 左의 二缺陷을 無視하는 것을 指摘하엿다

一、各國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地理的 等에 잇서서 다른 事情에 關하야 各紛爭의 解決도 局地的으로 進行되는데 對하야 普遍的 統一的 準則으로는 有國際情勢에 잇서서도 形式的 協定에 끈치리라는 것

一、條約의 終局의 執行인 强制規定을 缺하야 不戰條約無視國에 對하야 何等實行的制裁를 加할 수 업고 또 當事國以外의 加盟國에 對하야 行動開始를 强要하는 手段이 具備되여 잇지 안타는 것

須磨氏「新生」事件 急速解決을 督促

在中日本首腦部協議에 依해

新訓令도 同時에 傳達

【上海六日發聯合】不敬事件記事執筆者 易水는 五日召喚訊問하기로 되엿든바 居住不明이라는 理由로 無期延期되엿다 雜誌新生도 一部에 發賣되여 잇다고 傳한다 他方 上海一部 居住民會에서도 中國의 不誠意에 憤激되여 上海市黨部의 活動停止를 嚴重要求할 것이라는 硬論이 잇슴으로 有吉大使는 右情勢에 鑑하야 六日午前十一時 磯谷陸軍武官 佐藤海軍武官을 官邸에 招致하고 三時間에 亘하야 今後交涉에 對하야 거듭 協議한 結果 午後再次須磨總領事에게 訓令을 發한 바 須磨總領事는 七日 唐有壬次長을 訪問하고 急速한 解決을 督促하는 同時에 新訓令의 內容을 通達할 터이다 그리하야 同事件의 解決도 暫時遲延되지 안흘가 注目되여 잇다

米一週間의 銀行出入高

【電通華盛頓六日發】米國商務省으로부터 六月二十八日發表에 依하면 六月二十八日로부터 一週間의 銀輸出入高는 左와 如하다

輸出	五九七、九七九弗
輸入	三、二一一、一〇五弗

에國在留米人에 卽時退去命令

米國務省當局의 言明

【華盛頓六日發聯合】아디스아베바駐在米國代理公使는 六日에디오피아在留米國人에 對하야 卽時退去命令을 發하엿는데 右에 關하야 國務省當局은 左와 如히 言明하엿다

에디오피아在留米國人은 現在 總數百二十五人으로 其中約百十人은 傳道에 從事하고 잇다 米國政府는 萬一을 念慮하고 이미 二週間以前부터 米國人의 退去問題에 對하야 考慮하고 잇섯다 따라 米國人退去命令이 에디오피아政府의 不戰條約에 基하는 對米提訴와 때를 갓치하야 發表케 되엿는데 이는 事實은 全然別個의 것으로 米國이 不戰條約의 提訴를 受諾지 안흔 結果 米國人에게 退去를 命한 것이 안이라 米國政府는 에디오피아政府의 提訴를 受理하기 以前에 이미 아디스아베바駐在米國公使에 對하야 米國人退去方針을 訓令하엿다

英國人도 撤退乎

【倫敦六日發聯合】英國政府는 에디오피아在留英國人에 對하야 近近 撤歸命令을 發하게 되리라고 觀測된다 이미 米國政府는 六日自國民에 對하야 撤歸命令을 發하엿는데 倫敦外交界는 이것으로 伊太利 에디오피아 兩軍衝突의 危機는 刻刻으로 切迫되는 證左라고 하고 잇다

日曜氣配

◇期米 天候恢復에 目先大槪로 遭富되나 富限渡米는 依然困難한 模樣으로 下値之하고 氣配不變

◇株式 前途의 見解가 되지안흠으로 閑散不昧로 氣配不變

大新	八三、〇〇
東新	一三五、二〇
鐘新	一一三、三〇
日産	六六、〇〇

◇綿絲 不變

日本內地天候全部晴天

八面鋒

本社新聞展覽會에 初日入場者 無慮六千!

◇

新聞展覽會는 朝鮮社會가 待望하든 것이라는 證左!

◇

米華府外交界 不戰條約修正論이 擡頭!

◇

修正보담도 運用이 問題! 修正해 자 運用못하는 條約은 그대로 두어두는 것이 오히려 威嚴維持에 나지 안흘가? 條約은 맨드는 것이 아니라 行하여야 할 것!

今日本紙六面

新聞小史(三) 第一期甲申時代(三)

開化實錄인 當時紙面

民世學人

× 오늘은 漢城旬報의 紙面을 通하야 如實하게 비추는 甲申前後開國進取와 自立自强의 國家的 努力의 脈動하는 景像을 紹介하려한다 當時對內的으로 政治의 改革은 一大懸案으로 잇섯거니와 한편으로 數百年傳來하는 當面의 大敵이든 老大한 淸帝國과 걸어서 間島問題를 사이에 노코 얼마큼이나 피와 주먹의 눈물겨운 緊張한 國際關係를 가젓든 것이니 이는 매우 興味깁흔 情況인 것이다 開國策決定以來 第一等人物의 하나이오 熱血과 材幹을 아울러가젓든 先驅的 政治家인 魚允中은 西北經略使로 姚慶雲位하게되어 自身을 北方邊境에 跋涉하야 越墾民의 直接哀訴도 무릅을 마주하여 자세히듯고 흥은 白頭山의 天界를 허치어 定界碑의 位置와 그 經緯도 搜探케하야 對外便의 理論的根據를 잡고 한편으로는 貧困한 財政中에서 오히려 西北 各地에 國防策을 세우고 거룩시 整備케 한 것이니 卽 西北經略使의 大君主께 올린 狀啓로서「開北 演兵之地에 鎭砲彈丸을 宜備多數」라고 北方軍備의 허룸히 할수업슴을 指摘하여「新設한 鎭軍二百五十人은 演習이 日久하니 錫餉을 官給」이라고 請願하엿고 平安兵馬節度使 李鍾健의 狀啓로서「寧邊府의 國東東兵은 四朔操鍊이온바 就其中 一朔은 移操於藥山城」이라고 鴨綠江第三線의 防備에도 應分의 留力을 게을리아니함을 보이엇다 이와가튼 한편에는 輓近國家思潮과 民族意識의 勃興하는 처음 試鍊이든 間島에 關한 國交問題가 얼마큼이나 民衆的 關心 및 그 情熱을 충동이엇든 것을 엿볼수잇다 한편으로 當時 維新途中의 日本兵備가 完成되여가는 情況을 報道하되「鎭臺守兵하고 屯田久駐하야 操鍊이 無虛日하니 誠强國也ㅣ라」고 例證으로 하며 朝鮮의 國力이 委靡不振함을 反照慨歎하엿다。

× 癸未八月二十日付의 協辦交涉通商事務 穆麟德(卽外交協辦、德國人)이「奉上旨하야 購十二馬力火輪機器 一副于上海」라는 것은 領選使 金允植이 天津에서 青年들에게 機械學을 學習케하다가 壬午軍亂으로 倉猝歸國한 後이 種類의 輸入地는 依然 洋人의 居留하는 中國方面이든 것인 한편 上述한 諸問題一歎과 잘 서로 表裏되는 것이오 同十月六日 韓政府「草記」로서 國內火賊橫行의 狀況을 報하되「明火放砲호대 不分晝夜하며 到處劫掠하야 無所顧憚」하는 事情임으로 行旅가 阻絶하고 分納이 滯滯하는 事情을 記述하야 內政整備의 急을 說하고 또 方面의 越江하는 白衣人의 事情을 紹介하되「俄人」들의 招撫設居附近의 高麗人民 한것이 已有 數百餘家」라고 朝鮮人의 離村狀況과 國外流出이 벌서 尋常치 아니함을 表示하엿고 弱少諸國이 歐洲의 帝國主義侵略下에 부닷기는 狀態에는 一層의 關心과 同情을 보내어「安南事起源」이란 題下에는 咸豊八年 英法聯合軍의 諸國攻擊以來 法國人의 安南侵略의 顚末을 敍述하야 法國橫暴의 所致임을 미워할바를 斷言하고「安南도 亦東洋之一國」이라고하고「緬甸도 亦亞細亞南邊之一國也ㅣ라」라고 初等地理學的 解說까지 하면서 東方의 諸國民이 하나식 둘식 東漸하는 西勢에 먹혀드러가는 現勢에서 萬大한 公憤과 및그警戒를 보이고 잇다「日本瑣聞」의 題下에서「日本參議 伊藤博文」이 歐洲로부터 歸國한 報道를 실고「日本皇帝 特勅全國臣民하야 시사 期以庚寅年으로 設立君民同治之政」云云의 解說을 부친 것은 明治十六年(癸未)인 當時에 잇서서 明治二十三年(庚寅)이면 國會가 開設될 新興日本의 維新中의 日本이 얼마큼이나 부럽고도 明朗하게 그들의 눈에 비추엇든 것을 알 것이오 그翌年甲申에 爆發된 十二月四日의 改革騷亂이 日本의 援助를 信賴하고서의 急進擧事하야 結局의 失敗로 돌어간 明明한 經緯의 消息을 읽을수 잇다

上述「地球全圖」의 東西兩半球의 挿繪와 함께「天圓地方」의 局見을 깨트리려고 娓娓數千言을 쓰고「論洲洋」의 題에서 五洋六洲의 世界情況을 指摘하고 흥은 南洋方面의「紅光燭天」하는 大火山爆發의 情況을 描寫하야 거기에도 見聞을 넓히는 社會敎育的인 소임을 다하려고 힘씻스며「市直發報」인 經濟欄에서「立憲」「日本國」「米國」等의 市勢變動의 一斑을 보인 것도 興味잇는 바이다 內政을 근심하고 兵備를 마련하고 外交로는 抗爭에 緊張하면서 機器學을 배우고 新機械를 購入하고 弱少國에 同한 義憤을 가지고 新興國을 憧憬하고 以外에 米合衆國에는 期待되는 外交使節을 보내는 등 開化獨立黨의 先驅者들의 愛心仲仲 努力奮發하는 것이 歷歷히 나타나서 當時의 紙面은 一部開化의 實錄인 觀이 잇게 한다

對中根本方策의 審議를 開始

【東京電話聯合】日本政府는 新生事件解決에 對한 南京政府의 態度如何에 따라 絶大注目을 拂하고 잇는데 一方北中事件의 糾正을 못하고 드되여 對中第二段工作의 具體案作成을 急히하야 今週부터 外務省 東亞、通商兩局聯合協議會를 開催하고 그 立案에 着手할 터인데 陸軍當局과도 充分交協을 完了하고 對中國策의 根本義를 確立하기로 되엿다 對中第二段工作의 重要因子로 注目되여 잇는 것은 左의 二點이다

一、中國에 對한 積極的 協力의 要求 南京政府와 國民黨部는 武器를 버리고 對日手段으로 前後約二十年에 亘하야 排日運動을 國民的觀念으로 努力하여 왓다 日本政府의 이 觀念에 對한 要求는 繼續하야 現在에 及하여 잇는데 排日運動觀念에 對한 日本政府의 要求의 强度는 今回의 北中事件과 新生事件에 잇서서 中國側도 充分認識한 것이라고 確信한다 따라 排日取締와 如한 單純한 消極的 要求에 끗치게 하지안코 日中提携의 具體工作에 對한 南京政府와 國民黨部의 積極的協力을 要함

一、北中에 對한 새로운 認識의 要求 滿洲國의 存在는 그 接讓地인 北中에 對한 새로운 認識을 要求하는 日本政府는 滿洲國의 健全한 發達을 爲해서는 如何한 努力이나 不惜한다는 決意를 갓고 잇는바 그 때문에는 北中에 對한 新事態의 認識은 絶對不可欠한 것이라고 中國에 要求할 터인데 中國에서는 北中을 將來 一般商域과 다른 特別地域으로 政治、經濟、社會文化의 分野에 잇서서 日、滿兩國에 對하야 協力을 求할 것이다

夏物洋服品揃
羅紗製品 卸問屋
限商店生地見本相場表進呈
大阪市谷町一 石尾仁本店

鋸製造卸 大五道具 卸値段表進呈
大阪… 武村製作所
電話東八一一六番 振替大阪七六四七〇

勞働 セーラー 乘馬ズボン 洋服各種 製造卸
其他小倉服一般
大阪市東區平野町一丁目二〇番地
若原直商店
(商店에限하야見本相場表進呈)

毎月二回 月五日十五日廿五日発行
本紙의使命
本紙는 … 大阪에서 發刊되얏시만은 … 本紙를除하고、다시볼수업다、이것은本紙가創刊以來、許多한苦與과 不少한努力이、그裡面에潛在하야잇슴을 如實히證明함이오特히新聞雜誌事業이 그얼마나經營하기至難함니나함을 吾人에게暗示함이다 誇張의宣傳을避하고 健實한步調로進就하는弊社의維持方針과嚴正한比判과 正確한報道를主로하는本紙의使命은、將次이압호로잇서、더욱日本에잇는同胞와 大阪商業을取扱하는 實業家를爲하야貢獻하려고하오며、滿天下篤志家諸賢에게 切實한愛護가잇기를바라나이다

相互通信
本社創立大正十三年
講讀料 一個月先金三十錢、振替大阪七八九五九番
大阪市西區京町堀通一丁目四十五番地
大阪相互通信社
電話土佐堀三二六六番

特別優待
本社에서指定한課題以外일지라도隨意寄稿를半個年以上繼續하시는분에게는本社地方通信員으로優待하겟슴니다

薄謝進呈
右는課題에全部應募하야주시는분에게는 本紙一個年分又는 一課題應募하시는분에게는 本紙半個年分을無料進呈하겟슴니다

原稿募集 (課題와字數)
一、大阪에잇는同胞에게 一千字以內(漢鮮文)文體自由
一、내가經驗한처음戀愛 字數에制限니無함(純諺文)文體自由

結核免疫 治療豫防診斷 新
日本國內의成績 (全國多數醫家에서어든報告統計)
有馬青山太郞 三醫學博士創製
아ー오ー 아ーオー
製法日・英・米・加・愛蘭專賣特許 (醫家에護告)

肺結核의初期 肺炎加答兒에는特히有効하며他療法을不要하고全治輕快
肺結核의中期 非常히有効하야一般療法으로부터全治輕快八六%
外科的結核 驚異的으로有効하야全治輕快
眼科的結核 神効하며其他에도有効하야全治輕快
秘尿生殖器結核 初期에는手術을不要하고多數全快하며其全治輕快
肋膜腹膜炎 顯著한効果가잇고多數全治輕快
皮膚結核 에對하야도例外업시治効가잇서서顔面美容保存하고全治輕快
氣管支喘息 中本注射로因한全治輕快七九%
痔瘻其他 에對하야本注射의併用으로全治輕快
發病豫防 의實効가證明되엿슴으로虛弱兒童其他感染危險者의豫防에適用
無害確効 不快反應絶無
文獻贈呈
大阪市東區北濱四丁目
發賣元 須美商店
電話本局三二八六番

漁具
秋岡商會
京城明治町一丁目郵出所前
電話本局二三九〇、二一五六

京城金地金銀分析合資會社賣買
杉山商會
京城明治町 電話本局七四〇

巡查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京城府永樂町二丁目一番地
電話本局三〇二〇番

菜種商 大割引 種子는本場産아第一 芝罘白菜種 特 安東縣 大和橋通 芝罘農場出荷部

祝濟州支局發展
濟州島舊左面長 高榮鍾
濟州島城山面長 金鶴寶
濟州島南元面長 金日華

當選謝禮
本人等이今般高原郡學校評議員에當選되엿싸옵기有權者諸位에게謹히紙上으로謝意를表하나이다
昭和十年七月一日
郡內面 咸英軫
上山面 全載坤

淮陽郡蘭谷面東沙洞里
淮陽郡學校評議員 李學来

大割引
七月八日밤부터特別大公開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土曜、日曜、祝祭日은晝夜二回合니다
◇米國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 音樂喜劇 戀과 山賊 全八卷
監督…노ー만타욱크氏 主演…빙구로스뻬이氏
◇新興키네마社特作嵐寬壽郞프로닥숀映畵 時代劇 口笛を吹く武士 全八卷
監督…山中貞雄氏作品 主演…嵐寬壽郞氏
◇아ー로社特作映畵 喜劇 叔父歡迎 全二卷
主演…에디이라이온스氏
麻浦桃花洞 電話龍山 桃花劇場

當る五日特別公開(三日間) 大衆料金 階下二十錢均一
太秦發聲超特作浪曲トーキー
原作篠田實 口演同 監督志波西果 撮影河崎喜久三 浪曲トーキー
紺屋高尾
五月信子、谷幹一主演 上田吉二郎、松林清三郎、大倉文男助演
カミーユ、フラマリオンの學說より 原作アベル、ガンス氏
世界の終り
地球と彗星の大衝突!! 有史以來の大スペクタル映畵!!
新興キネマ特作現代劇 時雨ひととき
原作八尋不二 監督川手二郎 由利健次、花房銀子主演 久米順子、荒木忍助演
永樂町 電本二〇〇 中央館

七月四日부터 空前의 大興行! 晝夜二回公演
時刻 낮 午後一時부터 밤 午後八時부터
喜樂座中央大公演
百濟末史 泗沘水와 落花 全四幕
時代 百濟末義慈王二十年秋七月 場所 一、百濟城內、二、西沘水、三、泗沘江上、四、皐蘭寺
林仙圭作 프로그람
이 作品은 朝鮮劇界에 有史以來의 最大力作이오 百濟七百年興亡史를 背景으로 하고 三千宮女의 落花岩에 썩저진 悲壯한 史實이 三十年 前 百濟義慈王二十年의 悲壯한 史實을 그러냇슴니다
配役發表!
沈影、林仙圭、崔仙、文藝峰、朴齊行、李敬善、徐月影、卜惠淑、南方雪、劉桂仙、金允心、李淑玉 그外數十名
黃金町 電話光三五九五 優美館

七月三日より超特作大興行
新界驚倒!!破天荒の超豪華大番組!!全米映畵界の巨匠の第一人者たる二大巨頭キャプ、マイルストンの、コロムビア超特作日本版の併立獨占大封切
監督リエイス、マイルストン 主演ゲイクター、マクラグレン 其他八大スター大競演
海を嫌ふ船長
「西部戰線異狀なし」「雨」「犯罪都市」と多角的な才能を示した巨匠マイルストンが三年目の沈黙を破つて彼の全生命を賭し映畵界へ大波紋を投ずる驚異大野心篇!!
二、コロムビア超特作日本版
監督フランク、キャプラ 主演ワーナー、バグスター、マーナ、ロイ
其の夜の眞心
リスキンが織りなす話術の魅力!! キャプラが持つメガホンの魔力!!「或夜の出來事」の名コンビの再來、觀衆は舉げられた二度、三度!!「其の夜の眞心」のキャプラとリスキンにそして高らかに
團成社

鍾路署私食主人 腸窒扶斯로騷動

防疫週間으로大宣傳中에

留置人만은아직無事

방역주간(防疫週間)으로 세상이 떠드는 요사이 다수한 류치자를가진종로경찰서 사식차입하는 지정음식영업자가 무서운장질부사(腸窒扶斯)에 걸리엇다 시내청진동(淸進洞)일백십칠번지음식점영업자 아호예(芳野好惠)는 지난이일에 돌연장질부사에 걸리어 순화원(順化院)에 입원치료중인데 이는종로경찰서 사식차입인이므로 종로경찰서에서는크게랑패하야 그집을소독하는등대소동을이르키엇는데 이로인하야 류치인중 전염병이감염된일은업스나 종로서당국자는 은근히가슴을조리다하며일방순화원측의말을들으면그사람은경과가비교적조타고하는데 방금시내의전염병은갈사록더해저서 칠일아츰까지의현재로순화병원에수용된전염병환자가일백륙십삼인이 나된다고한다

龍山管內에는 一日에九名

連日新患者가發生

일긔가점점더워짐을따라 경성부내에는 감작히 전염병이창궐하야저서 위생당국자들은 각정동(町洞)과련합하야 방역주간(防疫週間)을실시하야 실지로 병균(病菌)의매개체인 파리 잡기를 장려하며 소재를깨끗시 하게하는동시에 위생에관한 활동사진을 일반에게공개하야 위생지식을보급시키고잇슴에 불구하고 이삼일래로 갑작이 전염병이만연되어 룡산경찰서관내에서는 륙일하로동안에 장질부사(腸窒扶斯) 환자가 발생되고 칠일아츰일곱시까지에도 원정(元町)삼정목일백구십사번지리씨(李氏)(二)와 산수정(山手町)일백일번지 최귀남(崔貴男)(?)의 두사람이 역시장질부사로 진단되어도 모지 종식될긔운이 뵈지안하야 로 위생당국에서는 일반이다각 각주의하야 내복예방약을 먹기를극대하고잇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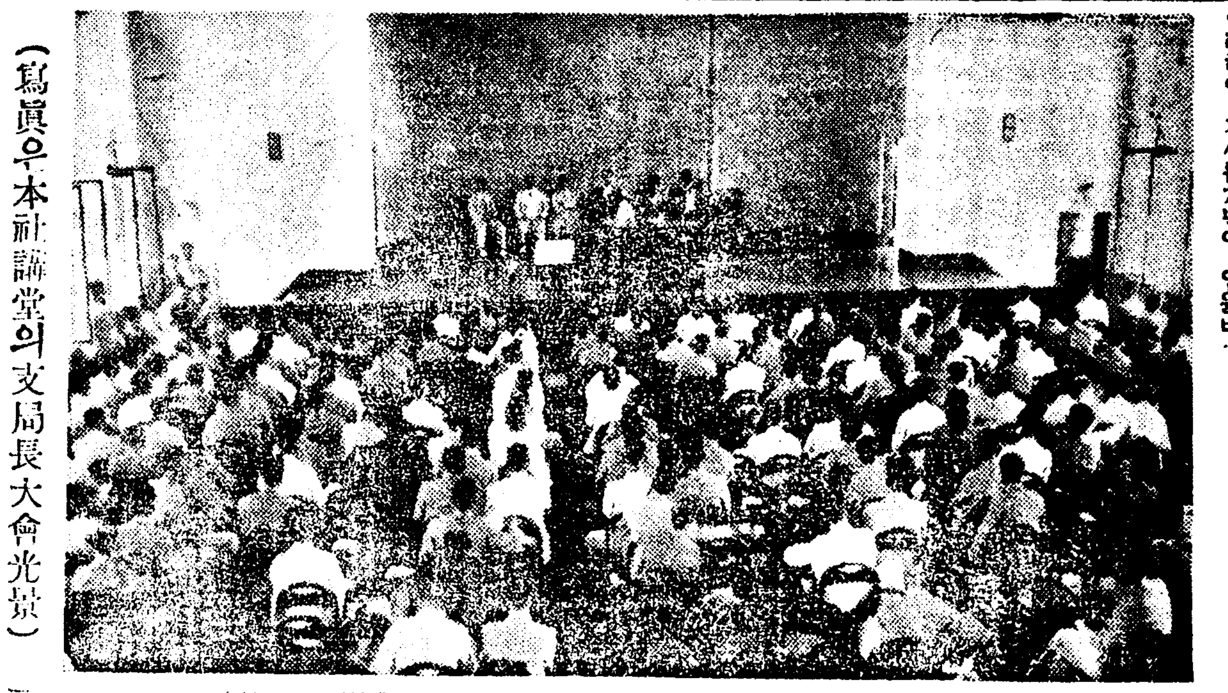
西大門外靈泉가든 뻐쓰에서解產

산모와애기는모다건강해

京電은入院費負擔

「뻐스」속에서 보통보통 세상을나온 애기가잇섯다 칠일오전 서대문경찰서압을떠나 경천(靈泉)으로향하는 경성전긔회사「뻐스」제삼천삼십오호가 교남동(橋南洞)일백삼십오번지압을진행할지음에 임신한중년의조선부인하나가 배가아프다고고민을하든끄테 해복기미가보임으로 동운전수박승순(朴承順)과차장정홍순(鄭鳳順)은급히정거를식히고 승객을내리게하는사이에「응애ー」소리와함께 어엽본딸애기가나왓다 이귀한해산을립회한 림시산파인차장과운전수는 즉시산모와애기를부근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에 입원식히고 소관서대문서와 경전당국에 보고하엿는데 산모는시외홍제내리(弘濟內里)일백구번지 김경운(金敬云)이라는 사람의 안해 조경자(趙慶子)(二六)로 그남편은 로동을하려 시골가고업고산모는 집이가난하야 시내에드러와 이곳저곳 남의집일을보아주든중 차차 해산기가갓가워오므로 당일아츰일직이집을 나가다가 뻐스의동요에그와가치감작이해산을한것이라한다그런데 산모에게는 이번이 첫딸이요 경전에서는또 전에 전차속에서는 애기를바든일이잇섯스나뻐스에서는 처음이라하야 경사를겨념하여 입원비 일체를 부담하도록 할터이라하며 산모와애기는 모다건강하다한다

◇觀覽客 輻輳하는 本社 新聞展覽會



(寫眞은本社講堂의支局長大會光景)

社屋新築 落成記念讀者慰安大會

八日부터 五日間本社大講堂에서

明八日夜八時

順序 管絃樂、째쓰밴드、流行歌、테너ー獨唱、新舞踊、俗舞、寸劇、레뷰ー

朝鮮日報社京城販賣所 (電話光化門二四九番)

各地三百餘名이參集

今日本社支局長大會

方社長訓示와各幹部說示잇고

功勞者三氏를褒彰

삼대경사를맞는긔념으로 이번에 소집된 본사오백여처지분국장회의는예정대로칠일오후 한시부터본사삼층대강당에서 본사영업국판매부장 방건두(方健斗)씨의 사회로개회되여 본사사장방응모(方應謨)씨로부터 지분국은 본사에모한조석이니그조석으로서의 사명을다할것과 지방에서나시내에서나독자를다만 독자라거나또는영업상 한고객이라고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독자와춘훈한련락을 취하야 그들로하여금긔자의 역할을하도록 하고한편 우리들은 남이말하는바 경세의목탁이니『여론의지도자』이니하는 생각을버리고 한거름나아가 사회의공복(公僕)이라는것을 더욱절저히깨닯아야할것인즉 우리사의사대강령의하나인불편부당(不偏不黨)의 큰정신을 본떠서 실천궁행하여야겟다 는요지의훈화가잇섯고 이어본사총무국장 김귀범(金貴範)씨의 본사의현재일반적 사황(社況)의자세한 설명이잇섯고 이어본사주필서춘(徐椿)씨와 편즙차장함상훈(咸尙勳)씨의 취재(取材)와 통신에관한주의와 요망이잇슨후 영업국장문서준(文瑞俊)씨와 판매부장 방건두씨의 영업에관한주의와 요망이잇고 무성적이 량호한대판 판매소주임(大阪販賣所主任)박영수(朴永壽)씨와 신문확장성적이 비상히조흔 대구지국장 장인환(張仁煥)씨와 십오년계속근속자인 장성지국장정봉련(長城支局長鄭鳳鍊)씨등 삼씨의 포창식이잇섯고 이어포창자대표의 답사가잇슨다음 각지지국장들로부터 여러가지 통신과 영업상에관한 제안(提案)이잇슨후 화기애애한속에 무사히폐회하얏다

初日六千名入場 新聞展人氣沸騰

午前十時開場、午後는八時까지

團體客에는隨時說明

본사가 일대자신을가지고 일반에게이바지하는신문전람회(新聞展覽會)는 과연백열적환영을바더 륙일에는 오후네시부터 일반에게까지공개하엿슴에 불구하고관람자는물밀드시모혀들어 문닫는시간여섯시까지에 륙천여명을돌파하고 제이일인 칠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시간전부터 각계 인사가 답지하야 회장내외는여간 혼잡을일우는바 아니다 전람회는 조선에서는 처음보는전람회로 실로전재일우의 이긔회를 일치안켓다하야 각학교단체를 비롯하야 일반단체관람자도답지하는 현상임으로 본사는짧은시간내에 될수잇는대로한사람에게라도 더관람케 하는동시에 다소라도 일반인사의 편의를도모하고저 공개시간을변경하야 오전열시부터 오후여덜시까지 연장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단체손님에 한하여는 요구에 의하야 위원(委員)이자세히 설명하여드리기로되엿스니 단체객은 이를리용함이 조흘것이며 개인이라도특히 신문문화(新聞文化)에 관심을가지시고 연구를 하려는분에는위원이 친절히 설명하여드리기로되엿다

路傍의母性愛劇

본처가빼아서간애기를 차즈려고대로에서싸움

妓生과本妻間싸움

륙일오후아홉시경에 시내통의동(通義洞)전차정류장염에서는 사십녀자와젊은이십대의녀자가 중심이되여간난어린애를쟁탈하는편싸움이벌어저『내자식을돌려주소』라는 애끗는 목소리로 웨치는본능적어머니의 고함과「우리남편의자식이지 네자식이아니다」라는 매섭고날카로운 사십녀자의 몹쓸린이에또그것을편역하는수명남녀가어울린싸홈은보는사람으로하여곰 완연한신파연극의조립망울발불케하더니 드듸어 자식을얻어하는 어미의 본능의무서운힘이 어린애를 랄취하야쏜살가티 혼잡한싸홈판을 빠저나고 말엇다 이어머니는 시내익선동(益善洞)일백륙십번지의 십일호에사는조금숙(趙今淑)이란 녀자로서집에는 불구의로모와 홀애비의삼촌을 밧들고 가난한생활을해나가다가 사라갈길이 업서삼년전부터시내한성권번(漢城券番)에영자(英子)라는 예명으로 기생이되여일가의 생게를지탱하여 가던중시내통의동(通義洞)리종석(李鍾錫)(三二)假名ー이와관계를맺고지나오다가작년섯달에전긔리종석의딸을낫케되엿다 그러든중지난날에전긔남자의 본처가간난애의장래의행복을 위해서라는감언으로 금숙이를 꼬여서 어린애를빼아가고 상심한 금숙이는 그본처가 애기를 빼앗기고생각한 이래로 눈물로 생각코 금숙이의 련결인 그 어린애를금숙이에게서 떼여자기의 남편을완전히독점하겟다는계책에서나온것이라고 간파하고는 남편도 나마이에해만을확하게길러 내겟다」는장렬한모성애의발로로그와가리싸홈을무릅스고 애기를 탈환해간것이라한다

(사진은 기생과 그의애기)

七日(日曜)

◇午後六時三○分 이야기 沈宜麟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話 古今疑問과 人生의福音 金永燮

◇同八時 라듸오드라마 兄弟 一幕 IＴＯ마레이作 (?)

母…朴啓道 모라(?)…李來恩 弟(長子)…李日光 君(次子)…李斗進 단(?)…(?) 夫…(?) 效果 放送劇硏究會 效果班

◇同九時 名曲鑑賞(레코ー드演奏) 一、交響詩「몰다우」스메타나作曲 (가)水源 (나)狩獵 (다)婚禮 (라)月光 (마)輪舞 (바)水精의遊戲 (사)急流 (아)고요한江 (伯林國立歌劇場管絃樂團 指揮 크라이버) 二、交響管絃樂 牧神의午後前奏曲 드뷔시作曲 (巴里콘세르 라무ー르指揮管絃) 解說 李鳧相 朝鮮靑樂家協會

◇同九時四○分 秋風感別曲外一 一、秋風感別曲 二、사랑歌 雜歌 白牧丹 長鼓 (?)

八日(月曜)

◇午後○時五分 古調 白雲歌과 短歌 白岳

◇同二時 婦人講座 結婚前後의衛生(一) 張文卿

◇同六時三○分 레코ー드音樂 繼續하야 經濟解說 普專敎授 金洸鎭

◇同八時 講演 一、防空에對하야 陸軍大將 林銑十郞 二、國土防空에對하야 參謀次長 陸軍中將 杉山元 譯 陸軍少佐 李應俊

◇同八時三○分 小春香歌外 一、小春香歌 二、博物歌 三、생매잡어 四、긴아리랑 李竹葉 鼓 (?)牧丹

◇同八時五五分 배뱅이굿 崔順慶

◇同九時三五分 俚謠竝唱 一、短歌 二、唱劇調 水宮歌 丁貞烈 鼓手 韓成俊

九日(火曜)

◇午後○時五分 俗曲 一、길군악 二、打鈴 三、靑春歌 四、방아타령 五、楊山道 六、아리랑 奚琴 池龍九 洋琴 崔壽成 細笛 高載德

◇同二時 婦人講座 結婚前後의衛生(二) 張文卿

◇同六時三○分 童謠獨唱 一、고향하늘(金) 二、나무닙배(金) 三、집보는少女(朴) 四、시집가신누나(金) 五、봄시내(同) 六、나는필리야(朴) 七、서울아츰(金) 八、산으로갈까바다로갈까(同) 金眞玉 朴敍子 伴奏 金福燮

◇同六時五五分 常識講話 朝鮮流荣의營養素에就하야(一) 金浩植

◇同八時 聖典解說 佛專講師 朴允進

◇同八時三○分 報念佛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興打令 四、개고리打鈴 趙素玉 曹芳玉

◇同九時三○分 獨唱

◇同九時三○分 靑律 京山會像 朝鮮正樂傳習所員

曆

七月八日(月) 舊六月初八日 乙亥·癸未(小) 乙酉·水·危

▲小暑 八日(舊六月初八日)

▲初伏 十三日(舊六月十三日)

▲中伏 廿三日(舊六月廿三日)

▲大暑 廿四日(舊六月廿四日)

天氣豫報 晴

東中國海中部에 滯留한七四八미리의 低氣壓은 北東方으로 進行하고 高氣壓은 小笠原에 今日도 滯留하엿슴으로 南朝鮮一帶는好晴이고 日本本州地方은 曇天인데 朝鮮內各地에는處處에 降雨가잇슬模樣이다 明日은天氣가良好하야晴天이다

昨日最高 二九、八 / 昨日最低 一七、七 / 今朝 一九、四 / 今日正午 二九、五

運動競技

府內初等敎員 男女卓球

三十八選手參加

市內初等校 男女敎員卓球大會는 七日午後一時半부터 和光普校講堂에서 會長鄭鳳鉉氏의 開會辭를뒤니어 競技는열리엇바 參加選手는 男敎員二十四名 女敎員十四名에 還하야 자못 盛況을 이루엇다

▲男子部【第一回戰】 鄭龍得(輔仁)0…3劉晳鎬(新明) 金翔鎭(新明)3…0鄭在鳳(加明) 李希仁(新明)3…0閔潤植(啓星) 鄭貫容(輔仁)…(棄)趙龍九(啓星) 武 滕(和光)…(棄)申龍均(興仁)

▲女子部【第一回戰】 金媛鎬(啓星)3…2李惠英(新明) 劉福男(新明)…(棄)崔明姬(啓星) 金顯善(和光)…(棄)金順子(啓星) 韓成男(加明)3…0金英順(新明)

龍鐵陸上滿洲遠征

龍山鐵道局陸上競技部에서는 來八日午後三時十四分 龍山떠나 다음의日程으로撫順、奉天에遠征할터이라한다

▲十日午後二時 對撫順 ▲十二日午後三時 對奉天

延專主催中等 陸上、庭球

大會期決定

延專主催의第十三回全朝鮮中等學校陸上競技大會는 九月二十四日(公休日)에、第六回全朝鮮中等學校庭球大會는 十四日(金)十五日(土)의兩日間 延專運動場에서擧行하기로되엿는데 申請期日과其他注意事項은 追後發表할터이다

文理大籠球入京

明日、普專과對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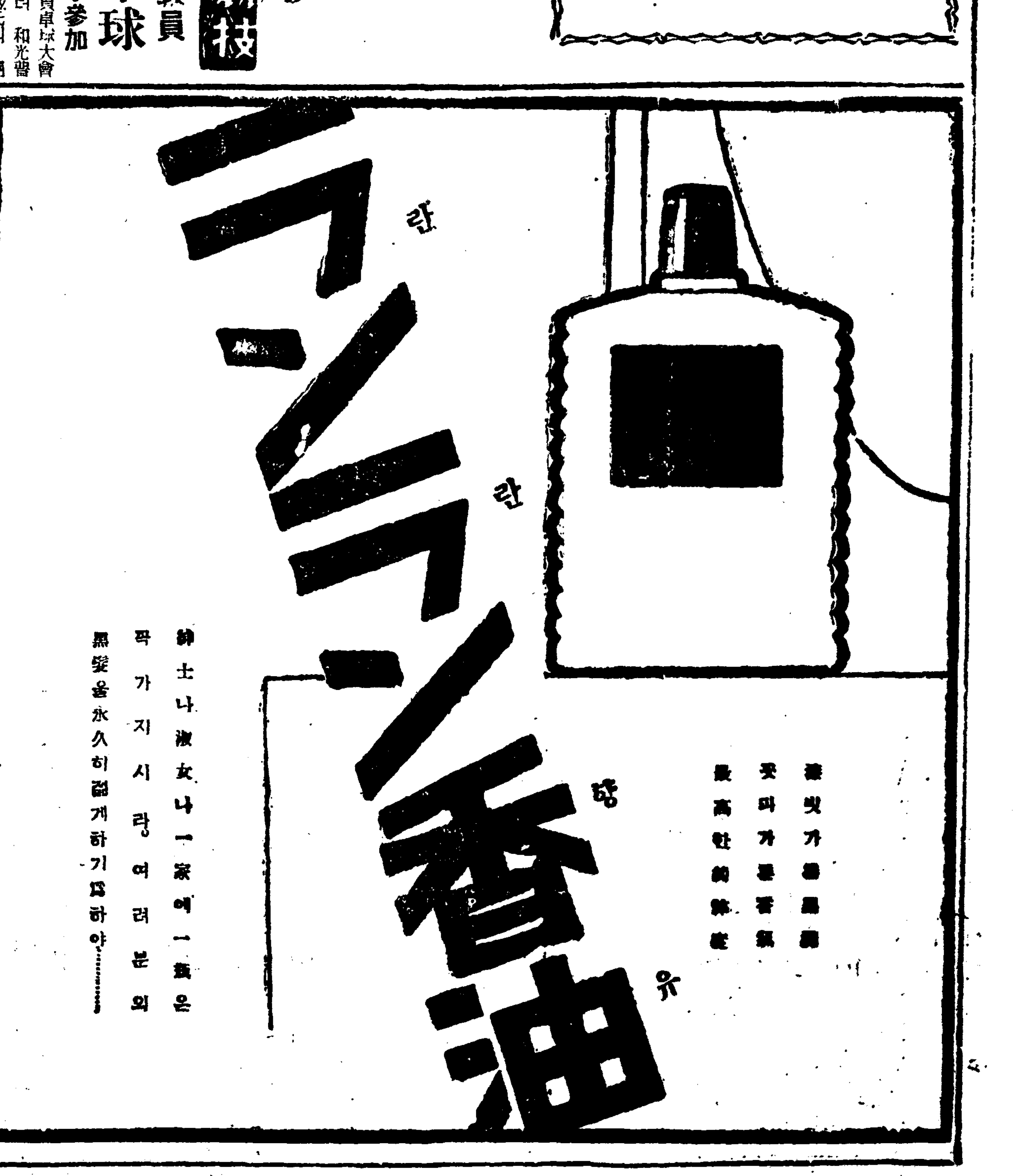
日本籠球界의重鎭 文理科大學籠球部一行十一名은 今七日午前七時四十五分京城驛着列車로元氣旺盛하게 入京하야 本町浦尾旅館에投宿하엿다 一行은明八日午後五時半부터 市內明治町入口第一銀行뒤 商銀庭球코ー트에서 今年度聯盟戰의 覇者普專軍과第一戰을 行하기로 되엿스며 第二戰은 全京城OB(九日)、第三戰엔延專(十一日)과 對時케되엿다

高商蹴球部

嶺南에遠征

京城高等商業學校 蹴球部에서는 이번 夏期休暇를利用하야 水原、滿洲等地를거처 嶺南地方에까지 遠征키로되여 一行十三名은 主將 盧世奎君引率아래 來十三日午後零時三十分 京城發 約一週日間豫定으로 出征할터이라는데 멤버는다음과갓다

▲主將 盧世奎 ▲選手 朱明裕 金釆 杜申鉉圭 趙乙生 閔丙斌 朴泰勳 趙萬濟 柳判燮 盧世奎 高亨元 徐承德 張吉燮 崔祈愛



빅타ー一週間

特別新譜

流行歌 속아도와조요 金福姬 / 우리들은靑春 李一男 (빅타ー레코ー드番號四九三六五)

俗謠 사설방아타령 閔亨植 / 둥개타령 金玉葉 (빅타ー레코ー드番號JK一○二一)

빅타ー레코ー드

筆生 遠近男女不問自宅机上에서自手로輕快히되는趣味잇는勤人學生婦女子에好適한일年中無休永久履行員을求함 申込次第詳報함 大和郡山町 山鹿文庫

家庭秘方 家傳 和樂의元素 調經液

婦人病赤白帶下症과特히産後諸症及姙娠이不能하야有理不足하신姉妹는 一次試用할지어다 御此爲求한 服藥後라야自生할것이니速히請하십시오 調經液定價二圓、送料五十二錢海外六十二錢

發賣元 調經液 紳香膏 本舖 江景邑黃金町四一 勉堂商會 振替京城一七一八五番 (說明書請求次第進呈) 特約店代理店募集

稻扱機를愛用하라 農村救濟를爲하야奉仕的破格廉價 今年에稻扱機는! 今秋의準備는只今하시오 新式의인最新의이어用實 岡部式

組立 一人用 二人用 一臺 特價 七圓五十錢 九圓五十錢

農具專門製作鑄造工業 大阪市西成區出城通五丁目九 岡部合名會社 電話櫻川 二一一六二 振替大阪一九九六一

奇人神談의主人公

東洋唯一 觀相師

●新運命의開拓은姜南月先生에

(姜南月先生)

姜南月은果然어떠한才士인가 그의빗나는두눈이 사람을대하는즉시過去現在未來를判斷하는朝鮮이나은天才觀相家이다 그의定評이 잇스니 장황히말할바업고 失敗와苦悶에彷徨하는분은來日을그대치말고 곳와서開運成功의길을물어 幸福을事前에圖謀하라 過去現在未來 總論、事前道方針과 適業指示、經營事業의成功如何、橫財運의時機如何、結婚問題의解決、其他人事百般에 永遠한責任으로親切詳評、人料金普通一圓、一生細評三圓 ▲地方은料金과生年月日時分明記送而、父母及夫婦年齡을記送하면 親切詳細答送하오 (寫眞添送亦可) 京城府昌信洞六八ノ十番地 東大門通使時計房側첫골목으로한참나음

姜南月觀相所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産婆 金奉允 入院隨意 診察 自午前九時 至午後八時 東大門거리·電車停留場前(電光二一三一)

肥滿劑 身體肥滿한데여러가지藥을도無效하야困難한분은業書로申請하면 肥滿을健全히하며害업시身體肥滿히되는良藥의說明書進呈 東京市麻布區 小川藥院

精神病科 入院室完備 精神病科專門 京城郊外淸凉里 院長 原振緖 原病院 電光 2643

自轉車 原價奉仕 信用問屋

特典付 製造元より直接出荷 原價表進呈 實用向優美堅牢 高級新車 中古車 保險付

諸官廳納品

七月六日부터超特別大興行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半 午後二時半 七時半

本社의犧牲的壯擧! 二大巨篇獨占封切!

R、K、O、라듸오超大作日本版 文豪 쩸스、M、바리原作 名匠 리차ー드、워레스監督 世紀의女性… 캐사린헵번主演

小牧師 全十一卷

雄渾한原作의豪華、名優快演의 豪壯的演出、世紀의女性헵번의最高의神技!는드대어 이리저 偉大한文藝傑作을낫다、感激과눈물에어린至純과、奔放、情熱의悲戀詩!

◆FOX超大作日本版 에릭、샤루루渡米第一回作品

캬라반 十一卷

로례타영、찰스、보이에 共演 名所의才藝、하이마名曲의旋律、 은여기에다시裝飾音樂로ー맨스의大作을낫고藝術의極致는、黃金의하향가리아大空에울러잇는演 名曲 —(次週大公開)— 쳐가 흐르는포텐츠의極致、 離別의曲、 흘리가는첫사랑 —乞期待次次週上映—

JO太秦發聲映畫 おれは水兵

全鮮第一映畫殿堂 電光 團成社

祝朝鮮日報社新築落成

京城電氣株式會社

新文化建設提唱

新文化建設策

社會科學페-지

이世紀에드러서면서 人類歷史는 일즉이보지못하든 크다란 危機에부닥첫습니다。그래서 文化領域에잇서서 理論과 方法과 材料가 統一되지못하고 도리혀、서로分離되는 現象입니다。이것을일러서 科學의危機라고 하는것이니 우리네의 文化領域에잇서서 이러한 危機가 根幹的으로 가로노혀잇슴으로 우리네의生活에잇서서 不安의氣分이 사러지지안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우리네의 生活에잇서서 오늘날의不安한氣分을 掃蕩하자면 먼저 이科學의危機를超克해야할것은 두말할것도업는것입니다。이것은 自然科學에잇서서도 그러할것이고 社會科學에잇서서도 그러할것입니다。

그러나 社會科學의危機를 超克하는데에는 먼저 社會科學이라는것의 技系的限界를決定해야겟는데 社會科學이라는말은 우리에게 새로운語感을주느니만치 또한 그말의가지는限界가 매우 偏狹하게解[illegible]된 嫌疑도업지안엇습니다。그럼으로 여긔에서는 社會科學이라는 말의當然히 가저야 限界를決定하기위해서 먼저、經濟學、社會學、言語、等의새로운文化의 建設策을 다各各 그方面의專門하시는 大家에게서 個別的意見을 드러오고다음으로 이러한社會科學을통드러서 發展식히고 建設하는綜合的意見으로서는 下記두題目에논어서 또한 斯界의諸家에게 高見을빌녀오것입니다。(L記者)

特殊事情에鑑한 經濟學의朝鮮的研究論

李順鐸

政治 法律的 道德的 宗敎的 藝術的 乃至 科學的諸文化는 各時代 時代의 또는各地方 地方의 物質的 生産力 如何로 決定된다는것은다시 더 說明 할 必要가 업다。이 意味에 잇서서 본다면 經濟學의 朝鮮的 研究는至極히 必要한 일이다。詳言하면 朝鮮의 經濟的 研究를漠然히『뷰하』의 經濟 發達 三段說에 依한 封鎖的 家內經濟 都市經濟 國民經濟或은『리스트』의 經濟 發達 五段說에 依한 漁獵經濟 游牧經濟 農業經濟 農工業經濟 農工商業經濟 乃至 三時段說에 依한 自然經濟 貨幣經濟 信用經濟 資本經濟等으로 [illegible] 研究할것이 아니며 또는 다른 民族의 經濟와 [illegible] 獨特한 經濟的發達을 [illegible] 所謂 獨逸 歷史學派的 研究態度를 取해보는것은 必要한일이 아니다。[illegible] 經濟學은 社會科學의 一로서 經濟學의 研究對象 [illegible]『富를 獲達하기 爲하야 [illegible]』는『社會關係』는어느 時代 民族에잇서서든지 富의 [illegible] 同一한 [illegible]까닭이다。[illegible] 意味에 잇서서보면 經濟學의 [illegible]『어담·스미스』의 經濟的 自然法則의 [illegible] 研究하는 態度를 [illegible] 어느時代에는 物質的 生産力이 어떠햇으며 또 [illegible] 生産力에 [illegible] 分配關係는 어떠하다。그리하야 한 時代로부터 다른 時代로 推移하게된 原因은 무엇이가를 捕捉하야 朝鮮經濟의 史的發展을 밝혀서 一般經濟史의 地方的 民族的 特殊部分史로 築成한다는것만은 必要且 有効한 일일것이다。그래서 이러한 研究를하기爲하야는 몬저 무엇보다도 材料蒐集이 必要한데 蒐集上在意할것은 一定한 時代의物質的 存在條件 卽 有生無生의 諸種生産手段을 通해서 보는 物質的條件 如何에 置重해야할것입으로 各時代의諸般 記錄物은廣히 探求할것은 勿論이지마는 過去의記錄이 반다시 正確할수가 업슴으로 그다음에는 各時代時代의 殘存物 例하건대 出土品을 實見하야서 比較 解釋한다는것이 必要한 일이다。따라서 高麗時代라면 그 時代에는 物質的 存在條件이 어떠햇느냐를 아러서 그時代의生産 分配關係 要컨대 經濟關係가 어떠한것을 알고 그經濟關係는 어떠케해서 持續乃至 崩壞 되엿다는것을 밝혀야 할것이다。

이것은 經濟學의 朝鮮的研究의 史的方法論이지마는 한便으로는 또 現實的 研究도 해야할것인대 史的 研究는 研究上여려가지 制限 卽 記錄物의 不完全 出土品의 僅少等으로 因한 制限 때문에 不自由하지마는 그에 比하면 現實的 研究는 記錄物의 膨大함[illegible] 利益 때문에 퍽 自由스러웁다。그래서 이러한 研究를하기爲하야도 材料蒐集이 必要하며 [illegible] 우리 材料를 만히蒐集했다고하더라도 그 [illegible] 及 研究의 態度가 正[illegible] 이다。[illegible] 하야 어떠한 發展階段에 [illegible] 엿다든지 或은 어떠한 文化的 特殊性을 發見하려고 努力하며 乃至 一般的 自然法則을 發見하려고 努力한다는것은 決코有効한 일이아니오 現實 卽物質的 存在條件을보아서 그에適應한 어떠한社會的 生産 分配關係 卽經濟關係가 成立하는가 詳言하면 [illegible] 生産手段의所有關係는 어떠케되며 生産物의歸屬關係는 어떠하며 階級關係는 어떠케 推移하는가하는等의모든客觀的 情勢를 捕捉하야 經濟學의 法則의 妥當性을 證明한다는것이 經濟學의 朝鮮的研究의 現實的 方法일것이다。要컨대 一部에서 誤解함과가튼 特殊한 經濟學이 朝鮮에잇는것은 아닙으로 이를 目標로하는 研究는 徒勞에歸한다는것을 말하여둔다

新文化建設과 社會學의概念規定

河敬德

나는 이問題를 答하기前에먼저『文化』라는것은 무엇을意味함이며 또는 더욱이『新文化』라는것은 어떠한文化를 말함인가를 檢討코저한다。그러나 一千七八百字以內의 短文으로 簡單히敍述하라고한故로 이러한技術의問題에는 言及할수업고 다만『新文化』라는것가 勿論朝鮮在來의 文化와는 달으겟고 또는 朝鮮에 現今流行하는 諸般新物들과갓치 大體로는 和式、洋式、又는折衷式의 文化겟고 新進社會에서習適다쓰는말로서의文化이겟지한다 [illegible] 文化를 다음에 이와갓흔 八方美人的 [illegible] 識을文化改良에 必需要件으로認定하야 一般社會에普及식히이오 四、朝鮮在來의文化에對한 鑑賞 이라고하겟다

나는 이제 社會學의身分부터 證明하려한다 그런데 이것만도 相當히張皇해서 아마그남어지세가지問役에는 言及할餘裕가 업슬줄로 생각한다

『社會』라는말이 東洋에서 最初 使用된것은 宋程明道先生行狀에서發見할수잇스니 距今約八百五十年前에 생긴말이라고 하겟다 그러나 이말이 近世까지도稀罕하게씨웟고 하물며『社會學』이란말은 우리의 幼時에 全然히 들어보지못하던 말이다『社會』나『社會學』이 人口에 膾炙하게되기는 近十有年來의 일이라고 하겟고 그나마 東洋在來의 思想을 啓發하여 된것이라는 것보다 西洋學術을 大量輸入함에서 된것이다 只今도 往往히 識者階級의說往說來에『朝鮮社會學』이란 語句를 쓸뿐만아니라 또한『朝鮮社會研究』라는意味로 쓰는것을보면 [illegible] 지또는 누가社會學에 對하야 [illegible] 을한다면 어던분들은 突然히 두눈을크게뜨고「올치! 이제야」[illegible] 마머리를 갈게하고 唯物論이나 辯證法이나 無産階級의 [illegible] 그 무어이라던가를 [illegible] 늘어놓나나보다 [illegible] 하고 [illegible] 적까지 社會學이란말이 [illegible] 알수잇다

그리고 오늘날 朝鮮의識者階級에서『朝鮮代數學』이라던가『朝鮮物理學』이라는말은 쓰지 안으니 그理由는다름아니라 科學은 恒常普遍性을 띄는것임으로 假令 物理學이라면 宇內物質界에 共通되는物理學이지『朝鮮物理學』이따로잇고『英國物理學』『佛國物理學』等이 따로잇는것이아닙이다 그러면 社會學도또한 全世界人類社會에 永久普遍되는普遍的事象을 取扱하는 科學이오 決코어떤 國家나 民族의特殊事象에 對한 研究가아니다

社會現象에對한 科學的研究가 社會學이라는 名稱을目發하게되기는 距今九十七年前 卽西曆一千八百三十八年의일이니是年에佛 社會學者 콩트(Auguste Comte)가 拉丁語의 Socius (同伴의義)와希臘語의Logos(學、理、等의義)를合하야Sociologie(卽社會學)이라新語를 만드럿스며 獨語에 Sociologie와英語에Sociology가다 여긔서나온것이다 一千八百三十八年以前에는 社會學의父콩트 自身도이것을社會物理學이라稱하엿스며 콩트의師상·씨몽(C. H. Comte de Saint Simon)은이것을社會生物學이라稱하엿스며 [illegible] 米國社會學者와드(L. F. Ward)는 Sociology란말이『同伴』이란말과『學』이란[illegible] 合하야 [illegible]『社會學』이란意味의 Sociology란말을代用하자고 一時主張하엿다 [illegible] 것을『交際學』이라고 譯하엿고 同十三年에『社會學』이라고 訂正하엿스며 明年에『世態學』이라고 變稱하엿다가 又再明年에『社會學』이라고 再名하야 以來一般的으로 이名稱이

使用되여 온것이다 以上의 沿革만 보아도 社會學이그 名稱을바로 차저갖기에도 相當한困難이잇던것을알수잇다 그런데 古語에『名者는實之賓』이라고 한것갓치 名은그實을表示하는것인故로 社會學의名稱을確定하기에 이처럼困難이잇던것은 그內容에隱微難解한點이 만흠을暗示하는것이다 그隱微難解한點이라는것은무어이냐? 一例를들면 社會라는것부터無形해서 그

要領을解得키어려운것이니 假令前記程明道行狀에 보면『鄕民爲社會』란 語句가 잇고 玆에所謂『社會』란말을普通解釋하기는『社』는土地의神을謂함이오『會』는會合의義니 卽多少一定한地方에 居住하는人民들이 그地方의土神에게祭祀하기爲하야 會合하는것을넣음이라고하엿다 그러나 現今社會學者中에 이意味로 社會란것을 解釋하는者는한사람도업다 社會를現今社會學者들이 一般的으로解釋하기는 마음과마음의사이에積極的相關作用으로因하야된 關係이라고한다

社會科學振興에 對한 諸大家의 高見

說問

一、社會科學을研究하는學會의建設及擴充策

一、社會科學을研究하는專門雜誌의發刊策

李瑄根

社會科學研究를 目的으로한旣成學會는 아즉도 土台잡힌것이 업는듯하오니(筆者의私見)으로는 擴充策 어렵할수업고 建立策 어라하오면 첫재 이方面專門學徒의 網羅이요 둘재로 相當한 財源이잇서 大原社會問題研究所 쯤이라도 設備해놀 準備가잇서야할것이며 셋재로『社會科學』어라면 研究한다는 사람이나客觀的으로 評하는 사람이나 행용『맑스』主義로 認識되며 苦難을겻게 되는터이니 이點에對하야 어느모로든지 愼重考慮하여야될것입니다

엇잿든 方面의 專門雜誌를意味하는것인지 確實치못하야 具體的意見을 發表할수업읍니다만은 如何한方面을 勿論하고 學術的專門雜誌를 해보자하면 亦是斯界의 權威한 專門研究學徒를網羅하야 熱誠同人으로 사는 同時物質로나精神으로나 그들을 犧牲的으로 援助도 擴張하야만 學會의論文을 내놋든래도 [illegible] 그렇지 안흠만한 內容을 發表할수잇게하여야될것입니다 따라서 趣味本位의 大衆雜誌를 經營하는이보다 經營者로안저서는 物質로나 精神으로나 좀더만흔犧牲을 覺悟하는同時 努力과忍耐는 결게해주어야되겟고 目前의 人氣如何를眼中에 두지말어 收獲을 後日에기다리는 態度로나와주어야될것입니다 앗차指定하산枚數가 그래도半枚쯤 超過되엿습니다그려 (끗)

金斗憲

먼저엇더케學會를建立하느냐에 對하야서는 一方으로各界專門學者를網羅하야研究團體를組織하야 他方으로는斯道에理解잇는 有産家의後援을엇어 研究補助費를調達할것이必要할것입니다 그리하야 그學會에서는 年月一回以上順次로會員의研究發表가잇게하되 各自그任務를 徹底케하도록하여야 될것입니다 從來의經驗으로보면 會員各自의義務가不足하고 [illegible] 할것입니다。

販賣가必要할것이나 于先出資來에先決問題일것이요 그原稿는學會에서每月研究發表되것을 그대로실니면 될줄압니다。學術雜誌임만큼 一般雜誌처럼月刊으로할必要도업슬것입니다 그리하야 그內容에 海外의雜誌에比하야遜色이업슬만한權威잇는것이 되여야 할것입니다。

李克魯

朝鮮語學會는 周時經先生이斯界의 學者와함께 朝鮮語研究에 힘을 다하시던 때로 부터 四十年來에 여러 學者가 奮鬪努力하여 오든中에 더욱 最近五六年來에는 이 科學的 事業이 强化한結果로 數年前에는 한글綴字辭典編纂 對照案作成과 한글綴字査定과 로마字綴字法統一案이 이미 發表되엿스며 또 標準語査定과 로마字 等 모든일이 잘進行되어 가는 中이다 우리는 이發展을 딸아 더욱會勢擴張에 努力하는바 地方에友會의設置가 文筆家의 [illegible] 絡과 新出版物의 新綴字校正等에힘쓰고잇다。

朝鮮語學會의 機關紙인『한글』雜誌는 六七年來에 社會의翼贊과協力을밧아 잘發展되어 가는데 그 內容에 잇서 過去에는 專門研究雜誌이엇스나 綴字統一案이 發表된뒤에는 通俗化한 敎養雜誌로 變하엿는데 압으로는 研究의 議論도 실으려니와 더옥實際問題에 對한 材料를 만히 取할것이다。그래서 남의不統一한글을 校正對照하는것과、文藝家들의 名作을 趣味讀物로 記載하야 朝鮮語敎科書의 補習材料가 되도록 할 생각이다。

許然

社會科學을 研究하는 專門學會의建立은어떠한 方法에依하야 創建되던지 나는그方法에對하야는 별로 상관하지안음니다 그러나 集會의必要는 그學問을보다더切實히 또는보다더깁히研究하고저 하는데 그意義가잇는것임으로 몬저이方面에잇는 여러분이 眞正한 學者的態度와努力을 가지는데서비로소學會도完全한學會가생길것이라고 밋읍니다

이方面에 잇는學者들이나 學徒들이 眞情의努力이 잇다고만하면 學會는 自然히생길것이외다 서로서로의 意見을들을 必要가잇고 서로서로 問議할것이잇을것이며 自己의 研究한것을他와 比較도하야 보게되고또는다른이의 究明한것을 參考도하게될것이니 眞正한 意味에서 社會科學을 研究하는 분들이잇다고 하면 그들은自然 氣脈을 相通하게되고 또는 相互關係와 連絡을 맷게 될것이외다그럼으로 참된 學會를 바라는마음은 먼저 眞正한 學者를 생각하게 됩니다

旣成學會나 또는 새로 생길 學會를 통틀어 그 內容을 期하랴면 먼저 圖書의 完備가업시는 不可能하다고 봅니다朝鮮과가티 圖書館의 不充分不便宜한데서學者가 나기를바라며學問을專門的으로研究하려면 무엇보다도 그方面에 對한 書籍과 其他 研究材料를 갓추어 놋키전에는 滿足을 期할수 업는것이외다。그럼으로 旣成學會의 擴充을 爲하야는 圖書整備가 急先의 務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모리 조흔 研究가 잇다하더라도 그것을 發表할 길이 업다면 爲先 學問을 學問답게 살릴수도 업거니와또한效果도업슬것이외다。그럼으로 이것을살리고 또한 效果를 나타내는것은 出版事業이라고 하겟습니다 單行本出版 또는 專門雜誌의 發行等出版事業이 絕對必要한것은누구나 알바이지만 어事業은 營利로되기가 어려운點이 잇서서 容易한것이 아니외다 그럼으로 이러한種類의 出版事業은 적어도 當分間은 奉仕的으로 犧牲的으로하야될것이외다 그럼으로 미리부터 社會事業을 爲하야 잇는 新聞社가튼 基礎가 確立된 機關에서 만히 해주지안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朝鮮語文의 統一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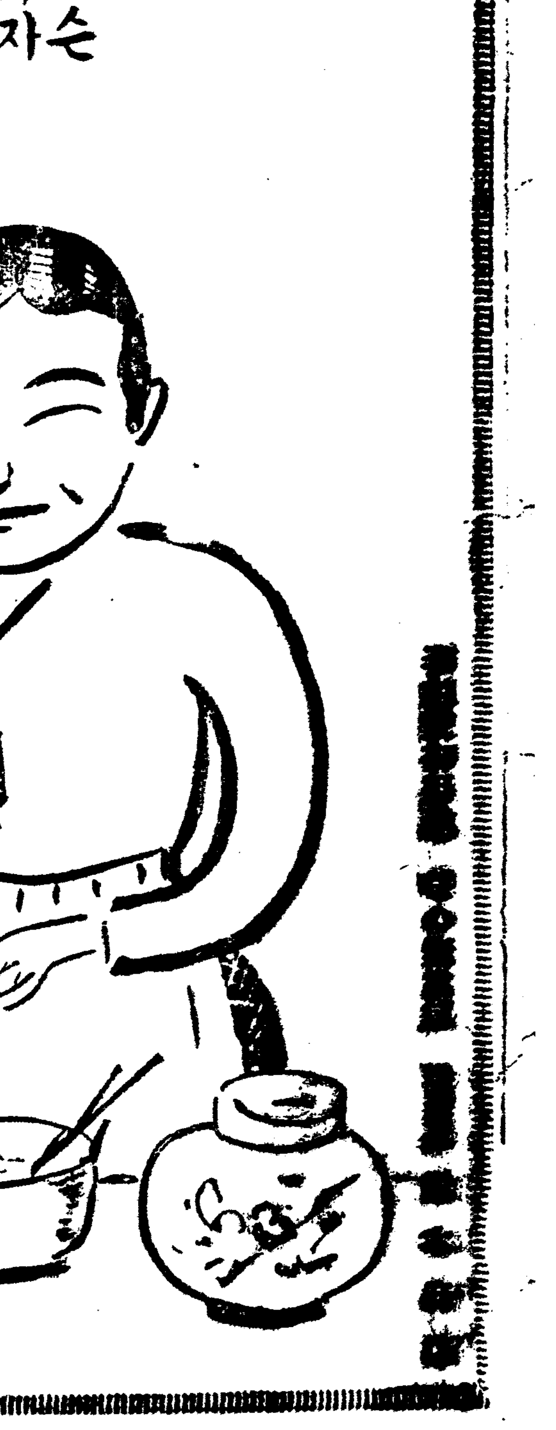
최현배

朝鮮語文의 統一은 朝鮮文化建設策의 가장 根本的이요 基礎的인것이다。그러면 朝鮮語文의 統一策은무엇이냐 이는 다만 朝鮮語文의 研究및整理에 專心努力하는專門家를信賴하고 그 成案을 一致遵行하는것밧게는 別道理가업다。우리 朝鮮語學會에서는 再昨年에『한글마춤법통일안』을發表하엿고 또 이어 各地方人士와 協同하야 標準語査定을 해가는中이다。元來말과 글은 萬人에게다 親近한것이기때문에 누구든지 多少의私見을 挿入할수잇슬것이다。그럿다고 萬人이 各其私見을 主張한다하면 統一은永永히 期待할수가업슬것이다。여기에 萬人은各其非科學的偶然的非組織的意見을 것어치우고 (Aufheben 止揚하고) 世界一般의 言語科學의 周到綿密한 理論的基礎우에서 充分히 研究整理된 語學會의統一案을 一致遵行하여야할必要가잇는것이다。特히 우리는 좁은理論의 少異를 버리고 實行의大同으로 나아가야 만할 歷史的任務를가진者이다。

자유자재

이것만치면 무슨
음식이나 자유자
재로 맛잇게할수
잇고 손쉽게 경
제롭게됩니다

아지노모도
味の素
(登錄商標)



「조선요리법」(정가五전 송료二전)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朝鮮事務所

中元御贈答品의豪華版!
資生堂石鹸
新美術罐入 發賣
―麗しい二色刷の熨斗紙付―
十ケ入・一円五十錢
六ケ入・九十錢

資生堂銀座石鹸
新美粧函入
熨斗紙付
六ケ入・六十錢
東京 資生堂 銀座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노-신

머리가 몹시압흘때……노-신
골치가 갈러지는것가치쑤실때……노-신
간간히 변두머리를 알을때!……노-신

頭痛이아니라도 머리가무겁고흐릿할때
過度한讀書로 睡眠이不足할때
술을過飮하야 그翌日氣分이 좃치못한때
이노-신한봉만 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 나슬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시드래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이藥은全國賣藥商店에잇습니다
各處漢藥房에도무러보십시오

定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二十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戀……オセロ의効能은 スゴイ
¥1.20 ¥2.00 ¥3.50 ¥5.00
各地藥房에잇슴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話光化門二四九

七月七日より短期特別公開 大衆特別料金階下十錢均一
大都超特作現代猛闘大活劇
原作脚色…松波三郎 監督…太田辰三
東鄉久義第二回主演映畵
都會山の巨人
琴路美津子、富村榮一、甲賀計二、清水明共演 松村光夫、谷定子
さて一世を風靡したおと昨け順珍二人組
ホイラーウイゼリイの痛快爆笑篇
マークサンドリッチ監督
メリケン萬歲
バートホイラー ロバートウイゼリイ大珍演
珍優二人組が素晴らしい自動車競走に飛び込んで大金もうけ、エロとナンセンスこれほど人を喰つた喜劇はまたとありません
大都超特作時代映畵
原作指揮…河合德三郎 監督……勝見正義
故桂章太郎主演映畵
仁俠三筋の卷
澤田敬之助、北見禮輝、都健太郎、若日輝夫子共演 遠山龍三介、久松玉城
義に强い仁俠ものの巾着切素走の棋太が戀を譲り淋しくも散る色時代劇
櫻井町 本局 大正[illegible]

眞正한高級眼科藥

쓰리지안코、압흐지안함

로―도안약

ROH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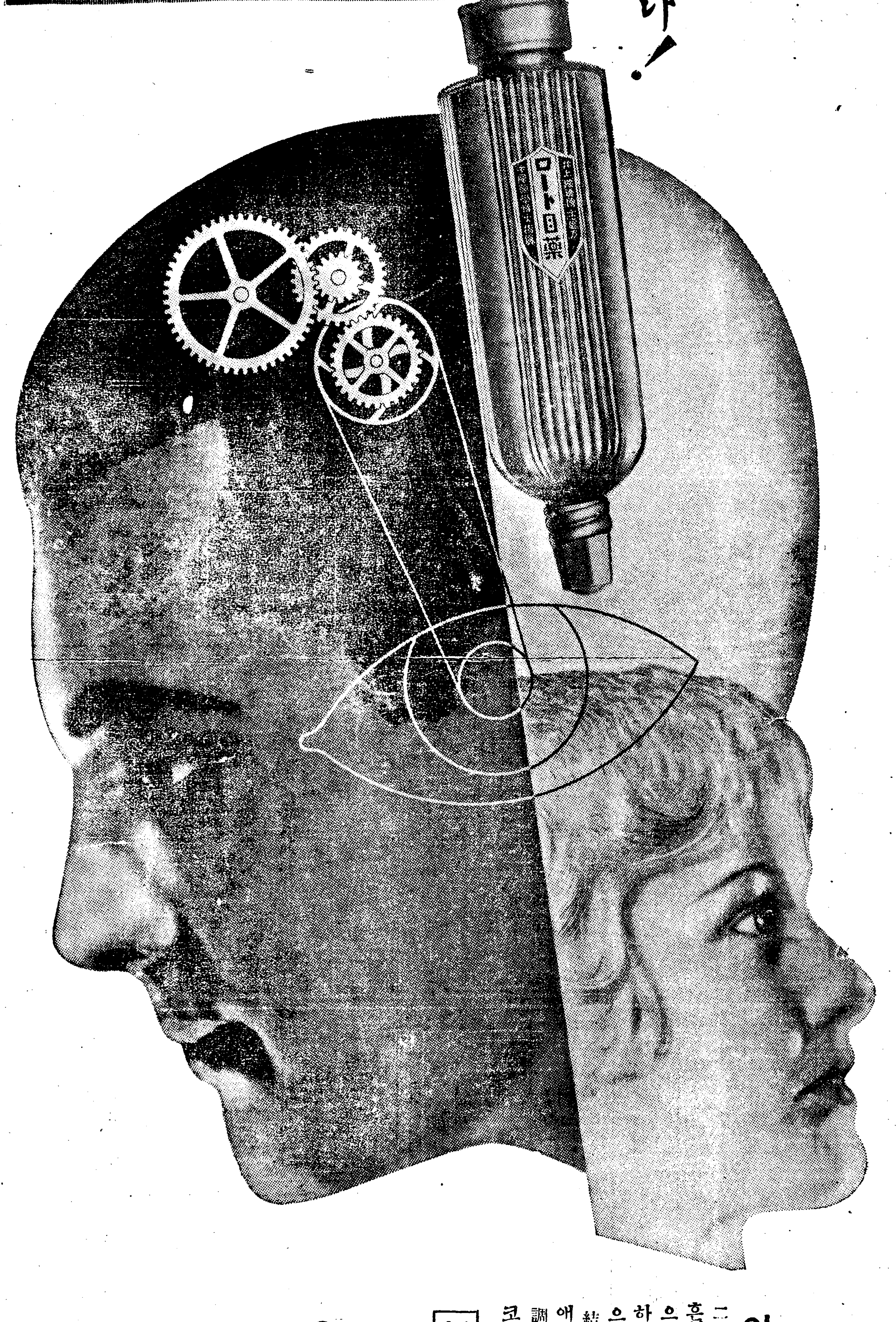
井上獨逸博士處方
中尾藥學博士指導

眼은腦를支配한다!

度數가맛지안는眼鏡을쓴다거나、或은長時間過度하게視力을쓸때、頭痛과、倦怠를느끼는것은누구나늘經驗하는바이다。이것은即눈이直接腦의作用에關係하고腦를支配하는것임을分明히證明하는바이다。

이러한狀態로되는것을醫學上으로는眼精疲勞라고하야、近代人、特히細文字를읽고쓰고하는學生과事務家、或은長時間裁縫에從事하거나、職業的으로微細한物體를보는사람들에게흔히잇는近代的疾患의하나이다。

眼精疲勞가된境遇에는、처음에는눈이疲勞하기쉽고、物體가朦朧하게보이고頭痛이나고頭重이되는程度이지마는、이것이더지나면睡眠이不好하고判斷力과記憶力의減退를보게된다。이러한症狀을自覺한境遇에는決코放任하지말고、그原因이될일을避하는同時에、로―도안약과 가튼健眼에効果잇는、適當한眼科藥을每日數回點眼하야눈에休養을주고눈을愛護하는것이緊要하다。



結膜炎

結膜炎이라하는것은結膜、即眼瞼의속과眼球를덥고잇는結膜에일어나는炎症으로世俗에돌닥눈、눈꼽끼는눈、부은눈、붉은눈이라는것이 이것이다。原因은k・w氏菌等의黴菌、塵埃、强烈한光線等이며、그症狀은輕할쩍에는結膜의充血眼脂의分泌、眼瞼의腫脹等이지마는그것이重해지면、充血과腫脹이甚하고或쑥쑥쑤시며、또밝은光線에對하여서는눈이부서서눈을쓸수가업게된다。이結膜炎의療法으로는每朝洗面할때에淸水로눈을 씻어眼脂等의不潔한것을흠처낸뒤에로―도안약을一日、二三回點眼하는것이 有効하다。로―도안약은그殺菌作用으로病原菌을殺滅하고、消炎作用으로炎 症을消散하며、收斂作用、鎭痛作用으로 充血과腫脹을낫게하고痛症을그치게하는 機能이綜合的으로 有効한作用을하는것이다。

角膜炎

角膜炎은世俗에삼눈、찔린눈、흐린눈、진물른눈이라하는것들인데、眼球의검은자위에생기는眼疾이다。原因은草葉이나나무끗에찔린境遇、或은結膜이進行續發하는境遇가만코검은자위가흐려지고흰삼이서서눈이침침하고、或은눈물이나서눈갓이진물르는수가잇다。療法은大體結膜炎의項에서 말한것과가티하면고만이나、로―도안약의優秀한消炎作用은 角膜의炎症에對하야極히有効하게作用하야 그收斂作用으로더부러눈흐린것을업새고진물른것을고치며、炎症이減退됨을따라눈물은적어지고 鎭痛作用으로疼痛이抑壓되는것이다。

適應症

結膜炎、角膜炎、도라홈
學校眼炎、眼瞼緣炎、疲勞眼
結膜充血、角膜翳・麥粒腫等

俗稱
上氣된눈、물린눈、진물른눈、눈곱낀눈、붉은눈、흐린눈、삼눈、저린눈、어둔눈、雪盲、찔린눈、부은눈、빽빽한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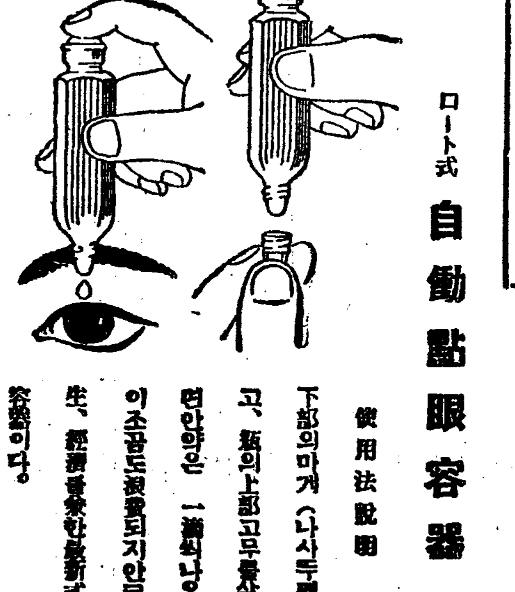
어린애의眼疾에對하야

二、三歲以上七、八歲때까지의幼兒들에게서흔히보는것이어니와、아침에일어날쩍에눈곱으로눈이떨들어붓터서、甚한것은눈을뜨지못하는수도잇고、또가자이눈의흰자위가淡紅色으로充血하는境遇도잇다。이것은흔히는急性結膜炎이되는것이다。

애기네들의點眼에는 小兒專用으로特히處方調製한「小兒用로―도안약」이잇서쓰리지안코아푸지안코安心하고使用할수잇습니다。

新案特許

ロート式 自働點眼容器



使用法說明

下部의마개(나사두껑)를떼고、甁의上部고무를살작누르면안약은 一滴씩나온다、藥이조금도浪費되지안코便利衛生、經濟를兼한最新式의點眼容器이다。

生産合理化
藥價低廉

小甁	二十錢
大甁	三十錢
御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全國藥店에서販賣함

本舖 山田安民藥房
營業所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
工場 大阪市東成區[illegible]

中部橫斷線問題로 江陵郡民大會

決議文等을可決採納하고 實行一切는委員付托

【江陵】 충주(忠州)강릉간의 중부횡단철도 건설문제는 그사이에 무진장의 산물개척을 촉진식히는 의미로보와 절대의필요를 감하게되어 저간 그의필요를 당국에향하야 역설해왓섯는데 근자당국에서도 이선로의건설은영월(寧越)단선을 배경하고 제출되어잇는바에 잇서서산한결과 강릉으로 이것을 철도에 의하야 운반하고 다시 강릉에서 해로(海路)편으로 수요지에 반출식힌다면 그경비는지극히적어 국히일본내지에것과 경쟁도 되겟슴을 발견하게되야 저간에 건설을 목표로한 로선부설추양까지 하얏슴에감하야 지원주민의열성을여기에표하야써이설로의 건설을 촉진식히자는여론은볼등하얏다 그래서드되어 칠월사입오후한시부터 강릉읍 공회당에서 전강릉군민 대회를 개최하얏는데 그회집자 는 실로오백륙십오명의 다수에 이르럿다그날 이문제에대하야 아래와가튼 연제로 각연사들의 열변과사업일체는 사십명의 위원에게 부탁 한다는것과 이어서 결의문등을 가결하고동오후칠시에폐회하얏다

◇演題 氏名

中鮮鐵道에對하야 吉田新四郎
感想 山本 宮鳳
交通發達의影響 崔 漳 集
大江陵建設에 權 增 源
熱과誠意 金 顯 鎬
感想 權 承 洙
炭田問題와本鐵道 崔 準 集

◇決議文

朝鮮中部를 東西에 貫通할 橫斷鐵道는 半島産業開發上 極히 緊切한것이라고 信함
至急히 關係各地와 連絡을 取하야 此의 達成을 圖謀키 爲하야 委員을 選定하고 目的 達成에 關한 機宜의 方法을 一任함

「네온」의거리에 學生出入嚴禁

平壤署서通告

【平壤】 평양서에서는 카페ー에서학생의출입과 녀급의외출을엄금하여문란한풍긔를취체케도여카페ー의내용조사를행하고잇든바오일부터 각영업자에게통달하는동시에 양식옥식점에도 가튼통고를하엿스므로 이날밤부터학생들은 완전히「네온」의거리에서 자최를감초게되엿다

旱魃이나은慘劇 農夫一名溺死

【牙山】 한발이 나은참극일막ー충남아산군 영치면석정리(靈峙面石亭里)에거주하는 신상설(申相說)(二一)은 지난사일오후신시경에 석정리부근에잇는 옥정저수지에서 물마른논에 물을푸다가 실족되여익사하엿다고한다

일고가터위치을따라 물에희생자가속출한다 지난오일오후네시경 진남포비발도부근에서 헤엄치며 놀든 당지룡정리(龍井里)일백이번지(一百二番地)고물상(古物商)신치국(申致國)의오남(五男)신계철(申啓徹)(一)은 헤엄치든중나려가는물결에어쩔수업시 몸을놀리지못하게되며 빠저죽게된것이라하며 아직시체(死體)는찾지못하엿다한다

地方人事

▲蔡博赤氏(宜川金融組合理事)轉任人事次宜川支局來訪
▲康正鎬氏(宜川金融組合水淸支所副理事)轉任人事次宜川支局來訪
▲李弘基氏(前宜川金融組合水淸支所副理事)今般前宜川金融組合理事로轉任人事次宜川支局來訪

紛糾中의高原公普 位置問題解決

高原警察署長調停으로

【高原】 함남고원공립보통학교확급증설긔지문제는 그동안 학부형층과 군당국자간의 쌍방주장이 동이나서이나 하면서군민간의견대립이되여 시급한 증축공사를 천연시기고잇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지난삼일 오후한시경에 고원경찰서 농구서장(瀧口署長)의 조정으로 그와가티분규중에잇든긔지 위치문제는 드듸여원만해결이되엿다는데 이제 해결된 리류를아러보면 서편에 잇는 군농회간견장급도로(乾繭場及道路)를옴겨놋코 긔지에다가 증축공사를하기로 되엿는데 학부형측의 주장하든동편보다는 도리혀서편인 간견장긔지사용이 집적양적으로보아 유리하게되엿다고한다

長項港의宿案인 上水道實現?

【群山】 군산대안인 장항항(長項港)은 년래군음료수(飮料水)문제로 일반주민간에는 늘급수전(汲水戰)으로 별별희비극을 연출하는 형편이더바 근근상수도(上水道)를 부설키위하야 충남도에서 방금가방에대하야 조사중이라는바 이로써 동항의급무중인 상수도도 근근실현을보리라한다

平壤府今年度起債 百三萬餘圓認可

近近府債發行着手

【平壤】 평양부에서는 금년도게획에의하여 전차구입비 이십칠만원 하천개수부담금 오만삼천원의긔채인가를 총독부에신청중이든바 삼일부로인가되여 오일도록경유하여 부에인가지령이도착되엿다 이것으로 금년도긔채 백삼만삼천원전부가 인가된세음으로 즉시공채발행에의하여 식은(殖銀)과 교섭을개시케되엿다 그런데 인가된긔채는 전기의두가지와 수도확장상만상천 궁민구제사업인 도로공사십일만원과 전년도에인가된 도로포장구만원등이다

平南北部各地에 夜盜虫이猖獗

【北倉】 평남북부순천、맹산、덕천녕원(順川、孟山、德川、寧遠)등일대에는 근일구즌비가 자조내리며 음천이계속하는 불순한긔후로말미아마 야도충(夜盜虫)이창궐하야 일반농가에서는 또다시 작년가튼흉작이 재습될가하야크게우려중이라고한다

旱魃繼續으로 祈雨祭를擧行

【裡里】 리리지방에서 계속되는 한발로인하야 이앙긔가지난지금까지사할박게는 이앙을못하엿스며 앙판(秧板)은말려서 귀열이되고 모끄츤고사(枯死)되여감으로리리읍에서는 지난륙일에긔우제(祈雨祭)를제를지내ー한다

本報支局募集 公州의新八景

應募當選者發表

【公州】 본사사옥신축을 긔념하는의미로 역사적도시(歷史的都市)요시적도시(詩的都市)인공주의신팔경모집에대하야는 루보한바어니와 이모집계획이한번발표되자 공주지방은물론공주의선경(仙境)을밟어본경향각지인사들까지 응모해와서 모집긔한인칠월말일까지근사십종에달하는 성황이엿다 주최자인 공주지국에서는 미리정한심사위원 칠인에게 위촉하야 엄선한결과 공주읍 대화정(大和町)김종헌(金鍾憲)씨의 작품을 일등으로 선정하엿고 이등은역시 공주읍 김부걸(金富傑) 삼등은 박준식(朴準植)씨등이엇스며 심사위원씨명과 당선된 신팔경은 아래와갓다

◇一等 (金鍾憲 作)
蒼壁泛舟 鳳凰海月 錦橋觀漲 鷄嶽春楓 王陵芳草 靈寺暮鐘 辛苑曖樹 熊津歸帆

◇二等 (金富傑 作)
鳳山朝暉 錦橋玩月 熊津何波 櫻園賞春 蒼壁福雪 靈寺凉夏 曖樹淸風 月城高秋

◇三等 朴準植 作
錦江繡橋 鳳山初月 熊津歸帆 靈寺夜鐘 王陵細雨 龍池垂釣 曖樹暮霞 蒼壁丹楓

◇審査委員=趙鳳儀 李鍾元、柳靖鉉 崔致瑞 高光錫 金殷東外二人

群山의道路鋪裝 一期工事近近完了

總工費二萬五千圓

【群山】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되어잇는 군산의근간도로라할 소화통(昭和通) 명치정통(明治町通) 영정(榮町)원정(元町)등의 제일긔 도로포장(道路鋪裝)공사는오는십일경을 전후하야 전부완료되리라는바 총공비는 이만오천구백칠십사원을요하얏다한다。

水泳少年溺死 【群山發】

安州高普基本金 二十八萬圓을超過

繼續遝至하는—

【安州】 안주고등보통학교 긔본금모집은 반년미만의 벌서이십팔만삼천원에 달하얏슴으로 삼십만원의정액보다 일만칠천원이 부족되는바 아죽도모집긔한이십이월말일 즉반년이남엇슴으로예정액은물론초과되는금액은 고보와관련되는 어떤유익한사업에쓸 예정이라함으로 지방인사는 힘잇는대로 힘을모호기바란다고한다 이제제사회채발표된금액은다음과갓다고한다

張學俊五千圓 崔贊熙六百五十圓 韓國彬 金璉洛 金鍾淑 各五百圓 李昌重三百五十圓 李銘爽一百五十圓 李昇泰一百圓 金道順 安炳憲 玛益均 松岡其一 咸滋一各五十圓 金榮煥三十圓 咸基郁 金啓道 咸順璜各二十圓 小計一萬九十圓 累計現金 二十八萬二千百八十五圓 土地 一萬八千五百坪 (第四回發表七月五日現在)

禮山의年中行事 蹴球庭球大會

【禮山】 례산스포츠계의년중행사의하나인 제칠회중조선개인정구대회(第七回中朝鮮個人庭球大會)와 제륙회호서축구대회(第六回湖西蹴球大會)는 례년과가티동아、조선중앙 삼례산지국주체하에래이십、이십일량일간 례산농교 운동장에서 개최한다는바 우승선수에게는 축구부에는 려비로사십원 정구부우승조에게는 십원을지급한다는데 다수참가하여주기를바란다고한다

一家鏖殺犯에 死刑을言渡

新義州法院에서

【新義州】 금년일월이십사일 평북강계군 전천면중암동(江界郡前川面仲岩洞)백리범(白利範)의 일가족네명을 한칼에 죽이고범행을 감추기위하야 그집에불을 질너노앗든 흉악한범인 김곽옹(金官雄)(二七)에대한 제이회공판은 지난삼일 오후 한시부터신의주지방법원에서 개정되여 국지재판장(菊地裁判長)은 전회에서 검사가구형한대로 사형을선고하엿는데 사실을 부인하든피고는 갑작이 돌변하야『어서죽여줍시오 지당하외다』하며 형벌을달게박겟다고하얏다한다

그女子의一生 【150】

春園 作 / 夕影 畵

방랑편

금봉은 은봉의 보고를 듯고

『아아 내가 잘못햇다。옵바의 말이 올흔것을 내가 죄악의길에서 벗어날 최후의 긔회가지나갓다。나는 한량업시 길혼죄악의 벌판으로 헤매 게되는구나。』

이러케 생각하엿다。

이 때에 대문박게서 이리오너라 하는 소리가 들렷다。은봉은 낫을 찡기며

『그녀석이 또 오는군』

하고 종알대엇다。오후네시가 지나면 거진 날마다 차자오는 김광진의 음성을 은봉은 잘 긔억하엿다。

『그 녀석이라니? 그게 말버릇이냐』

하고 금봉은 은봉을 책망하엿다。

『그 녀석 아니구。무엇하려 그녀석이 남의집 안악네만 잇는집에 코를 줄줄 끌고 날마다와? 깨수룩을 뒤집어씨울까보다』

하고 은봉은 독살을 부리며、형을 노려보앗다。

『저것이 아모것도 모르고』

하고 금봉이가 겻헤 잇는 자막대이를 들다가 도로 놋코、

『주둥아리 꽉 닥처!』

하고 마조 눈을 흘겻다。

『정선아』

하고 광진이가 마루끗헤 올라서다가 은봉이가 뾰로통하고안사방에서 튀어나와서 인사도아니 하고 건넌방으로 가라는것을 보고、

『어、은봉씨。내가오늘은 은봉씨헌테선물을 하나사왓는데사내눈으로 골른것이라、원체 은봉씨눈에 들까。어듸 좀 보시오』

하고 미쓰꼬시라는 봉합 부튼 뭉텡이를 은봉에게 내어민다。

초겨울이 다 되어도 나드리옷 한벌도 업는 은봉의 눈에는 미쓰꼬시 물건이라는것이 황미를 아니끌수가 업섯다。그것은 글려보지아니하여도 옷감인것이 분명하엿다。

은봉은 광진에게서 그 뭉텡이를 바다서는、

『이건 왜 주세요?』

하고 어찌할줄을 모르고 들어고는 잇섯다。

『내 누이동생이 혼인을 하게되어서요。그래서 혼수흥정을갓다가 은봉씨 생각이 나길래변변치못한것을 한감사바꼬앗자오。내누이 혼인날자가 오는시월삼일이니 그때에 혼인구경이나오시라구。』

하며 마루에 놋코 명구의책상압 회전의자에 안는다。

금봉은 그동안에 머리도 고치고매무시도 고치고 마루로나오면서、

『오셧서요?』

하고 고개를 숙인다。

『네。정선이 잘잇섯서요?』

하고 광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점잔케 인사를 하고 도로 안즈며 다른 뭉텡이 하나를 금봉에게 주며、

『이것은 정선이게 주는 선물이야요』

하고 금시 은봉에게 말한대로 누이동생 혼인날이 음력으로시월상일인것을 말하고 청첩은다시 보내겟지마는 그때에 꼭 출석하여달라는 부탁을 한다。

『언니。내게도 이것을 주셧는데』

하고 은봉이가 아직도 광진이가 준 물건을 들고 섯다가 형의 처분을 기다리는듯이 뭇는다。

『그건 웨 그러케 하세요?』

하고 금봉이가 또 한번 고개를 숙여 광진에게 고맙다는 뜻을 표한다。

『원 천만에。무엇 그런것을』

하고 광진은、

『그런데 오늘 오것은 ー참 손선생헌테서 무슨 긔별 또 잇요서?』

하고 금봉을 바라본다。

『업습니다。남양으로 간다는편지가 오고』

하고 금봉은 수색을 띄운다。

『그러세요? 오늘 내게 손선생헌테서 편지가 왓는데、역시 남양으로 떠나느라고 하고 또 가족을 부탁하니 돌아보아들이라고 하고 또 돈 이천원만향항상정을산으로 보내어 달라고 하기로 바로 전보환으로 붓처들엿습니다。친구를 밋고 부탁하신것을。범연히 할수가 잇습니까 그러니 생활에 관하여서 조곰도 염려마서요。』

하고 광진은 금봉을 바라본다

桂貞植博士提琴獨奏

伴奏 피아노 獨逸人 콜러孃

◇湖南線
△光州八日 午後四時 第一普校講堂
△全州九日 公會堂 △群山十日 公會堂
△裡里十一日、裡里座 ◇成鏡線 追後發表

(會員券壹圓)

主催 朝鮮日報社

地方巡廻

新興

咸南道安驛前
朝鮮土木建築請負業 金鑛業 百原組
組長 鄭京亞
書記 千鵬南
總務 朱熙律
庶務主任 宮崎策十郎
會計主任 全海雲
會計員 千宗石
事務員 鄭千模
事務員 朴承弼
檢收員 李將吉
元洞出張所主任 李龍石
漢岱出張所主任 安定基
高湖洞出張所主任 千鵬謝
書記 下李龍祚
書記 下金敬澤
書記 下愼宗元
書記 下徐鼎弼

本籍 新興郡永高面興慶里
現住所 咸州郡下岐川面眞興里
間組配下
咸州郡面協議員
下岐川公普學務委員
新興郡學校評議員
劉學豊

新興郡元平面長典里
三景農園 主 康弼模

新興 無名氏

新興郡東上面達阿里
達阿峙金鑛事務所 鑛主 李熺珉

新興郡東上面達阿里
日新金鑛事務所 鑛主 高日龍 朴昌海
鑛區 達阿里四區、二區(一鑛區)三區(二鑛區) 豊山郡安水面十藤洞(一鑛區)

新興郡松興驛前 布木雜貨食料 咸興商店 主 申根澤

新興郡松興驛前 丸上材木店 金振壽

新興郡松興驛前 京城洋服店 主 金在照

端川
關治郞吉
安昌柱

興上
定平郡朱伊面東峰里 健康果樹院 嚴仁燮
咸州郡川西面興南里 金翼冕
咸州郡川西面興南里 蔡相國
咸州郡川西面元興里 安若敏
咸州郡川西面三里 柳春局 柳豪會
咸州郡川西面高陽里 崔斗千
朱地面協議員 朴成龍
川西面雲門奄東峰寺 住持 崔炯默
咸州郡朱地面項水里 金炳璿
咸州郡朱地面新坪里 申錫淵
咸州郡朱地面洗東里 劉根豊
咸州郡川西面高陽里 崔光澤
咸鏡線咸南興上驛前 興上醫院 公醫 盧龍奎
咸州郡朱地面新興里 朴亨麟
咸州郡朱地面新坪里 金秉洙
咸州郡川西面元興里 崔庚煥
咸南興上驛長
咸州郡朱地面項水里 朱雲表
咸州郡朱地面豊西里 韓龜甲

學校團一同
金太壎
丸子回生堂
妻□九
元右□
端川公普保護者會一同
徐睿植
端川稅務署職員一同
咸南商會
崔銀石
永信號
大同木材商會
張德河
中島富士一
全希洽
李玩永
金陽律
永樂園
端川穀物檢査所
松尾愛生堂藥房

眞池洞
平南線眞池洞驛前 石泉醫院 醫學士 金柱燮
眞池醫院
眞池洞 金仁學
平南線 眞池郵便所
平南線眞池洞驛前 唐金農園 金益範
池雲面眞池里 協議員 徐恒直
眞池洞 姜基煜
平南線眞池洞驛前 龍岡溫泉石一手販賣元 金鼎鎬
眞池洞市內 東亞染織所 康承億
龍岡郡池雲面事務所員一同
眞池洞 金泰鳳
池雲面協議員 李文周
平南線眞池洞驛前 尹鳳柱
眞池洞一區長 馬貞玉
眞池洞 牧師 崔俊燮
平南線眞池洞驛前 齒科院長 林周淳
朝鮮中央日報社 眞池洞支局
眞池洞 朴榮燮
眞池洞 金容凰
平南線眞池洞驛前 傳道師 張信弘
平南線眞池洞驛前 柱觀寫眞館 金柱鶴
台城里 金鳳儀
大同郡金祭面區長 東文湧
眞池洞 李信根